

시 본청 국장 6명 일괄교체...유정복표 조직혁신 신호탄

김진용 시 재정기획관 경제구역청 차장 발령 등 인사
능력·성과따라 인재 배치...서기관급 13일 발표 예정

취임 2년 차를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본격적인 체제 구축에 나섰다.
인천시는 9일 부이사관(3급) 및 기초부단체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승진자 12명 등 모두 30명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본청 국장 6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등 취임 2년 차에 대비한 대대적인 인사다.
시는 이번 인사 예고가 시민을 위해 일

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한 유정복표 인사 혁신의 첫 신호탄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관심을 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는 김진용 시 재정기획관이 직무대리로 발령받았다.
이일희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으로, 한태일 경제산업국장은 남동구 부구청장으로 전출돼 이사관 승진을 눈앞에 두게 됐다.
허영수 규제개혁추진단장과 박병성

재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각각 인천발전연구원 파견과 재정기획관으로 임명이 예고됐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한 달여 만에 직무대리를 때는 파격을 단행했으며, 인천AG조직위원회 정산단에 파견됐던 강신원 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승진했다.
김복기 시의회 의사담당관은 수도권 교통본부장으로, 변주영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직무대리를 떼고 승진했다.
이와 함께 이종호 주거환경정책과장이 도시관리국장에, 지창열 경제청 송도개발계획총괄과장이 송도사업본부장에

승진 예고됐고, 최정규 경제청 영종청라 사업본부장은 직무대리를 뒀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은 부이사관 승진과 동시에 신설되는 재난안전본부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유병윤 투자유치단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상수 도시관리국장과 조영하 건설교통국장은 인사과 정보 발령을 받았다. 김 국장은 수도권매립지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은 남구 부구청장에, 이형균 자치행정과장은 옹진군 부군수로, 김순호 사회정책재과장은 강화 부군수로, 김광석 인천 유니이티드 사장은 인천AG조직위 정산단장으로 각

각 자리를 옮긴다.
김장근 부이사관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복귀해 신설되는 인천아트센터 추진본부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조동암 경제청 차장과 강상석 행정관리국장, 전영욱 인재개발원장은 공로연수를 떠난다. 이부현 남동구 부구청장은 명퇴 후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인사가 그동안 능력을 겸비하고 성과를 낸 국·과장 발탁과 젊고 패기 있는 인력을 전진 배치해 쇄신과 안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시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4급 인사와 함께 오는 15일 정식 발령할 예정이다. 인사 예고제인 만큼 일부 발령 사항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서기관(4급)은 오는 13일 인사예고를 실시한 후 8월 중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의 공정한 인사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무사안일, 복지 부동 등 공직 내부의 폐습을 답습하는 자는 과감히 주요 보직에서 배제했다”며 “능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하는 등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을 쇄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jih@kihoilbo.co.kr

검단신도시 경제구역화 루원시티에는 앵커시설

인천시 개발 활성화 방안 채택

인천의 고질적 개발 현안인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사업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마련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중동투자유치 붐을 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루원시티는 행정타운 중심의 제2인천시청사 등의 앵커시설을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계획이 단기간에 성사되기는 어렵지만 사업 필요성이 높은 만큼 사업 타당성 용역 시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추진되는 검단신도시는 1지구 전체 11.2km²와 지난 2013년 해제된 2지구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외한 3.3km² 등 총 14.5km²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사되면 검단신도시와 주변 지역 발전을 선도할 앵커시설 및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안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용역을 위한 내부 검토와 관련 용역을 마치고 있다.
특히 검단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추진의 경우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동 순방을 통해 협의한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시는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와 검단에 글로벌 기업도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스마트시티는 검단에 글로벌 기업형 도시 ‘퓨처시티’에 대한 조성투자자의향서(LOI)를 전달받은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스마트시티는 두바이·몰타·인도에서 이미 추진되는 사업으로 검단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교육기관 등을 결합한 미래형 지식클러스터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와 함께 9년째 담보상태에 놓인 서구가 정동 루원시티에 대해서도 제2의 시청사에 버금가는 앵커시설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루원시티 앵커시설 유치는 유정복 시장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맺은 정상화 협약이 힘을 싣고 있다.
시는 현재 인천시청사 시설물 재배치를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루원시티도 행정타운을 주 내용으로 한 제2의 시청사 유치가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루원시티는 주택공급 중심의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추진 중인 탓에 외국 자본 및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행정타운 등의 앵커시설 유치로 오랜 기간 담보상태에 놓였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jih@kihoilbo.co.kr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중국에서 온 반가운 손님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크루즈 ‘중화대선호’가 9일 인천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하선하고 있다. 이날 입항한 중국인 800여 명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인천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주안국가산단에 초고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인천 주안국가산업단지 내에 처음으로 ‘초고층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건립된다.
더불어 구조고도화 사업이 늦어졌던 부평국가산업단지에도 ‘스마트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부평지사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염전로 일원에 신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남구 지역에 처음 들어설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행자는 송도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자는 지난달 사업지 내 5천182㎡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착공은 12월에 할 예정이다.
초고층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사업지는 주안산단 내 희소가치가 높은 준공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최대 480%까지 가능한

주안국가산단 남구지역 지식산업센터 위치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상업과 업무, 편의 공간을 두루 갖춘 도심형 초고층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단공 주안·부평지사는 부평산단의 숙원사업인 ‘스마트 ICT 융·복합센터’를 부평구 갈산역 인근 4천700㎡의 터에 지을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경기도 감사관실이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창안하였습니다.

“어사들이 출동요!”

기동해결단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기업의 고충해결과 불합리한 공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감사관실이 발로 뛰며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인허가, 기업활동 저해 환경, 불합리한 공직관행 등 어떠한 불편사항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무조건 달려갑니다.

경기도 감사관 조사담당관실 031-8008-2918, 2966 | lth0821@gg.go.kr

세외수입 발굴 없이 주민세 인상 꼬집어

인천시의회 2일차 시정질의 답변 요지

강화고려역사 재조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용역 추진
서창지구 생활기반시설 부족 LH와 면밀한 협상 진행 중

인천시의회는 9일 제225회 정례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2일차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에는 차준택 의원 등 12명이 시정 현안을 점검했다. 다음은 시정질문 주요 문답.

시정질의

▶**차준택 의원**=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세외수입을 발굴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세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은호 의원**=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어 공원조성화 사업을 마친 부평역 광장이 관리 소홀로 쓰레기가 난무하고, 노숙자와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대책은 무엇인가.

▶**이한구 의원**=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진행하며 토목분야 및 차량 시스템에서 건설사와 민간사업자에게 답합 또는 특혜로 수백억 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2호선 개통 전에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영환 의원**=인천이 세계책의 수도로 선정됐는데 그에 따른 후속 사업이 부족하다. 학교도서관 안에 전문 사서를 채용해 책의 수도 인천을 극대화해야 한다. 행정과 재정지원 역시 시급하다고 보는데.

▶**조계자 의원**=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방재

정법을 위반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떤가.

▶**정창일 의원**=송도 6·8공구 랜드마크 시티를 건설하기로 한 외국자본이 '엑스포시티'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혈값에 땅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의자유치와 개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천 시민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영은 의원**=국립대학법인으로 제2의 시작을 알린 인천대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립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학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기약없이 미루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허준 의원**=인천시 행정조직 재난안전본부 신설로 '재난안전'과 '소방업무'가 이원화된다. 지휘체계 혼선으로 재난안전과 화재·구조·구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흥구 의원**=강화 고려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려역사를 중심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박병만 의원**=포스코건설과 함께 실질적인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대한 지역



여론이 싸늘하다. 1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6조 원가량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추가 면제까지 요청하고 있다. 맞는 말인가.

▶**유일용 의원**=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제2외곽순환도로 쌍터널 건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도로를 건설하면서 공사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오홍철 의원**=남동구 서창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수천 가구가 밀집하는 서창2지구 입주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도로시설 등의 생활 기반시설 마련이 부족하다. 대책은 무엇인가.

유정복 시장 답변

주민세 인상은 틀림없이 시민 부담이 크다고 본다. 가급적 시민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재정건전화에 위해선 현재 2018년을 성과 연도로 한 재정안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한 답합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개통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일부 우려도 있지만 인천 관광 활성화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시급한 사안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활시키는 만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단체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송도 6·8공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짓기 위해 엑스포시티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땅값 책정 문제로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인천 시민의 재산을 혈값에 내놓지는 않겠다.

인천대 대학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주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재정난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약속한 지원금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시 재난안전본부 신설로 우려도 있지만 정부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모두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소방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과 화재·구조·구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고려역사를 재조명할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강화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역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관심을 쏟겠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개발이익 산정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 연수구 조례에 따라 더 이상의 재산세 감면은 없을 것이다.

제2외곽순환도로 쌍터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사업 추진자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 조만간 긍정적인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남동구 서창지구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면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사장이 9일 창립 1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미래 100년의 향해 준비하자”

인천항만공 10주년 기념식 ‘해양관광의 메카’ 실현 다짐

인천항만공사(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9일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임직원 중심으로 검소하게 치렀다. <관련 기사 7면>

유창근 사장은 기념사에서 “출범 이후 10년 향해의 경험을 토대로 인천항을 고객이 만족하는 항, 회사를 국민이 사랑하는 공기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가 생겨나 인천항의 어떤 점들이 더 좋아지고 개선됐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10년을 마주하고 100년의 향해를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유 사장은 “공사가 추구할 목표인 친환경 물류 중심항과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메카 실현을 통해 인천항을 화물과 여객, 물류와 관광 비즈니스가 조화를 이룬 초일류 항만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7월 11일 출범 당시 2조683억 원이었던 자산 규모가 2조2천214억 원으로 7.4% 증가했다. 또한, 203억 원이었던 연간 매출액은 지난해 1천20억 원으로 5배 이상 성장했다. 조직은 3본부 14팀에서 3본부 20팀으로 인력이 118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성장세는 지난 10년간 공사의 보유 자산과 역량이 커지면서 그 역할과 위상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배종진 기자 jongjib@kihoilbo.co.kr

‘인천상륙작전’ 영화로 재조명… 하반기 촬영 시작

‘영화로 인천을 알린다.’ 9·15인천상륙작전 65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인천상륙작전’(가제)이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지난 2003년 영화 ‘실미도’와 올해 6월 개봉한 ‘연평해전’에 이어 또다시 인천을 알리는 영화가 제작됨에 따라 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치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시에 따르면 가치 재창조 프로젝트로 ▶인천인물 찾기 ▶섬 프로젝트 ▶강화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영화를 통한 인천역사 알리기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5일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제65주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6·25 특별연합기도회’에서 인천역사가 스며든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UN군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을 벌이기 전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올해 하반기 촬영에 들어간다.

특수부대인 ‘켈로부대’의 활약상이 영화의 중심 줄거리가 된다. 영화 ‘포화 속으로’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의 얘기를 다룬 이 재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주인공으로는 배우 현빈이 물망에 올라 있다.

태원 측은 지난 6월 시장실을 방문해 촬영협조 등의 요청을 했고 앞서 1월에는 인천영상위원회에 로케이션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영화 ‘국제시장’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부산처럼 인천 역시 역사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맞춤형 복지급여’ 인천 신청률 54%에 불과

20일부터 시행 사업 불구 참여율 저조
홍보 부족·복잡한 구비 서류 등 영향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사업’에 인천지역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을 요청한 신청자는 전체 신청 대상 2만6천848명의 54.6%에 불과한 1만

4천450명이 신청했다.

시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홍보가 부족했고, 대상자들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도의 서류를 챙겨야 하는 등 불편한 점 때문에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공서 방문을 꺼리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맞춤형 급여 제도는 2000년 시작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양화 한 새 복지제도다.

이전까지는 가구 소득이나 부양 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으나 맞춤형 복

지급여 제도는 소득이 증가해도 특성에 맞는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 생활보장팀(☎032-440-2922)으로 하면 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마차산

왕방산

소요산

칠봉산

해룡산

도심을 에워싼 자연의 향연 ~

파란 하늘, 푸른 산이 있는 건강한 도시, 동두천!

도심의 지친 마음에 휴식이 필요할 때,

친환경 자연도시 동두천에서 행복한 여행을 만끽하세요!

산악레포츠 도시, 두드림 동두천

평택시, 이젠 일상으로... 마지막 격리자 해제

〈메르스〉

확진자·의료진 모두 퇴원... 첫 진원지 병원도 재개원
공재광 시장, 박 대통령에 ‘국립평택의료원’ 건립 건의

평택시는 지역 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마지막 격리자가 9일자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택에는 능동 감시자 3명만이 남아 있고 이들도 오는 15~17일 감시대상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3일 178번 환자가 퇴원한 것을 끝으로 지역 내 메르스 확진자 30명도 모두 퇴원했다.

다만 확진자 중 4명은 사망했다.

메르스 첫 진원지였던 평택에서는 지난 5월 20일 메르스 1번 환자 발생 이후 1천394명이 격리조치 됐

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평택굿모닝병원 9층 병동이 코호트 격리(환자 발생 병동을 의료진과 함께 폐쇄해 운영)에서 풀리며 평택지역 의료진 격리도 모두 해제됐다.

전 직원이 자가격리됐던 메르스 첫 진원지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지난달 13일자로 격리 해제됐으며 훈중소독 등을 거쳐 지난 6일 재개원했다.

평택성모병원과 평택굿모닝병원

등 평택지역 2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평택박예병원 등 6개 병·의원을 환자들이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메르스비상대책단 관계자는 “현재 메르스 능동감시자 3명이 남아 있고 이들 모두 의심증상은 없다”며 “능동감시자들은 15~17일 감시대상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공재광 시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서 ‘국립평택의료원’ 건립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날 공 시장은 “메르스 사태는 평택에 오랜 기간 큰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고 미군기지, LNG 기지, 화력발전소 등 국가정책의 수용에 따른 희생과 상실감이 더해져 지역적인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보상하고 지역 의료체계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립평택의료원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hihoilbo.co.kr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33곳 인증

경기도가 올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3개 업체를 방문,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일 경기중소기업중앙지원센터 대표이사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인 안승남 경기도의원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축하 메시지 전달과 함께 기업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전과 달리 원거리에 있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최위원들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형식을 취했다.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씨티케이 ▶포렌스 ▶선일금고제작 ▶세원정

공 ▶테스 ▶엔코스 ▶에이치디에스 ▶하나푸드 ▶화이트산업 ▶남일엔프라 ▶세희망 ▶크로엔리서치 ▶휠렐 ▶아이팩이엔지 ▶유니스 엔지니어링 ▶토마토전자 ▶가드넥 ▶신형아이엔티 ▶일성에프에이 ▶두성시스템 ▶솔라사이언스 ▶모스탑 ▶대성아이디에스 ▶수광산업 ▶젠 ▶세미솔루션 ▶투에이치 ▶동하캐스트 ▶티이에스 ▶케이티팜스지큐리티 ▶우리네스 ▶벤트윈 ▶엠델테크놀로지스 등 33개 업체이다.

지금까지 도내 중소기업 307개사에 총 331건 385억 원의 인센티브가 직·간접적으로 지원됐다.

박광섭 기자 ksp@khihoilbo.co.kr



올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들이 인증서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 자금난에 숨통 도 ‘기술개발사업’ 28억 지원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자금 문제로 기술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학·연 주체의 기술협력력을 통해 도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총 28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주도 연구개발사업’으로 경기도내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당 1년 이내 최대 1억5천만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8월 13일까지 경기과기원 홈페이지(www.gstep.re.kr)로 접수하면 된다.

강나훈 기자 hero43k@khihoilbo.co.kr

도, 100억 추정 편성권 위임... 도의회는 유감

사전준비·공감대 없는 ‘느닷없는 제안’... 부정적 입장

경기도가 오는 20일 실시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10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권을 경기도의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사전 준비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느닷없는 제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도와 도의회는 1회 추경 사전설명회를 열고 추경편성 방향 및 예산규모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 및 여야 상임위원단장이 참

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1회 추경 자체사업비 603억 원 중 60억 원과 예비비 4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1회 추경 재원의 일정 부분을 도의회 상임위에 배분해 자체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이 같은 도의 예산

편성권 위임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지에 대해 의장단 및 여야 대표단 차원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당장 열릴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예산 편성에 필요한 충분한 의제 설정과 실무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상임위에 예산을 배분,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및 가뭄 사태에 따라 긴급·긴급하게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던져진 ‘남 지사의 즉흥

적 제안’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김 대표의원은 “남 지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도의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가 아무 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단과 여야 대표가 협의를 통해 절차나 편성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같이 중요한 추경을 앞두고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없이 갑작스레 편성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던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남경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기피시설 갈등 조정기구 필요

민관합동 현장 중심 접근
경기연 새 관리방안 제시

화성 광역화장장 설립과 안양고도소 의왕 이전, 경기 남부 신경기변전소 설치 등 기피시설 설치·이전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 갈등 조정·관리기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원은 9일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 갈등의 해결’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2년 20여 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11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이 8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대규모 시설 위치나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입지 분쟁이 대부분이다.

이에 이 연구원은 공공사업 추

진 관련 갈등에 관한 정부 규정과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기피시설의 입지 방식을 개선해 원천적으로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성공적인 입지 갈등 해결 사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방식, 갈등 행위자 간 협력적 상호작용 과정 도입, 대안적(법원 판결 외에 협상, 중재, 조정 도입) 갈등관리 방식 활용,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 민관합동 갈등·조정 관리기구 구성과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도내 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 때 사전에 갈등 영향을 분석해 발생 가능성을 분류하고, 모든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 놓는 현장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갈등 조정·관리기구를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경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좌석버스 청소년 현금할인 검토

경기도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는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도 현금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직행좌석형 버스 요금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2천400원에서 480원이 할인된 1천920원이다.

하지만 현금 사용 시에는 성인요금인 2천500원 전액을 지불해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장 형편으로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긴 운송 거리와 높은 인건비(버스 기사), 좌석 제공의 이유

로 현금 할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왔다”며 “이번 현금할인 검토는 청소년이 일반형 시내버스에서 현금 사용 시 200원을 할인해 오던 것에 대한 확대 방안”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금 할인 혜택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내 운송업체들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송업체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도는 버스 업계와의 할인 폭, 요금 조정 절차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남경필 도지사 ‘메르스 극복 노력’ 도청 직원들 격려

남경필 경기지사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도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남 지사는 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7월 월례조화’에 참석, “경기도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고 극복해낸 것은 모두 도청 직원들의 공로”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과정(메르스 사태)에서 경기도는 하나, 평택이 고통받는 것은 경기도 전체가 고통받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평택에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주)현대아스콘, (주)석천레미콘, 성산광업(주)는
경기북부지역 최대규모의 레미콘, 아스콘, 골재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자재 · 골재 · 모래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17-1 TEL.031)867-3833 FAX.031)868-0153

공공기관 페트병 생수 사용 땀 과태료?

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심의 문턱 넘고 최종 의결만 남아
수돗물 인프라+인식 제도 우선 지적 등 논란 계속될 듯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병입 생수(페트병 생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의회의 조례안이 결국 상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돼 본격 시행될 경우 페트병 생수 사용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청과 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내 페트병 생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도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는 물론 도 소유의 건물·시설을 대여해 열리는 민간 행사에까지 페트병 생수의 사용을 금지했다. 대신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 내 음수대 설치를 확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페트병 생수를 제공·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조기 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기 집행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동두천시는 상반기 조기 집행 대상 예산인 1천550억 원 중 915억 원을 집행해(목표대비 107.3%) 이번 지방재정 조기 집행 평가에서 행자부가 설정한 6월 말까지의 조기 집행 목표율 55%보다 상회한 59%를 집행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행자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hihoilbo.co.kr

도 집행부 역시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유보를 요구했으나 도시위는 이날 규제 대상에서 '경기도 도립공원'만을 제외한 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과태료는 주민과 개인이 아닌 사용을 방임한 기관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모든 행사에 대한 전면금지라 아니라 행사 성격 등에 따라 일부 허용 여부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유보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신계용(왼쪽 세 번째) 과천시장이 평택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방문, 공재광(왼쪽 네 번째) 평택시장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과천시 제공>

메르스 사태 평택 농민 아픔 함께 나뉘요

신계용 과천시장은, 직거래장터 방문 관계자 격려·농산물 구입 취지로 마련됐다. 신 시장은 "메르스 사태로 그동안 평택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과천시민들도 평택 시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hihoilbo.co.kr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8일 '렛츠런파크 서울' 내 개설된 평택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방문, 평택시 농민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산물을 구입했다. 이날 직거래 장터는 신계용 시장을 비롯해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 농민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메르스 사태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농민을 돕기 위한

조기집행 예산 1550억 중 915억 집행

동두천시 우수기관 선정

동두천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지방재정 조기 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의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모두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재정분석시스템에 입력된 조기 집행률, 민간 실 집행률, 3대 중점 사업 집행률, 예산규모 비율의 누적 추진실적 등을 평가했다. 동두천시는 올해 초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조기 집행 추진상황반



함께 사는 사회 '한 걸음 더'

이천 범시민 운동 '행복한 동행' 대한민국사회공헌 브랜드 대상

이천시가 범시민 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행복한 동행'이 대한민국 사회공헌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상식에는 조병돈 시장을 비롯해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한 이번 사회공헌 브랜드 대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앞장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사회공헌분야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행복한 동행은 2013년 8월부터 지역사회 복지지원 개발과 활동을 통한 새로운 기부 활동으로 시작해 현재는 재능뿐 아니라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현재 재능기부 사업장은 음식점,

이·미용실, 학원 등 390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일반시민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은 2천400명이 참여해 연 7천2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이는 성과를 이뤘다. 이 기금은 법적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금이나 물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이천시는 돈이 없어서 굶거나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향후 집수리 봉사단과도 연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의 집수리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돈 시장은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행복한 동행,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수원시 '명품 관광대전' 참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

수원시는 9일 서울 동대문 플라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에 참가,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홍보에 나섰다. 제1회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은 내수 경기 살리기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관광전으로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역관광협회, 관광공기업 150여 개 부스가 참여하는 하반기 최대 규모 박람회로 오는 11일까지 열린다. 시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앞두고 이번 관광대전에 홍보관

을 마련해 이날부터 외래 관광객 7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대전 기간 수원화성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 시는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이 축조된 지 220년 되는 해를 기념해 2016년을 수원화성 방문의 해로 정하고 정조대왕을 행차 유형 재현 행사 및 수원연극축제, 재즈 페스티벌, 수원화성 국제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심영규 기자 sims@khihoilbo.co.kr

현장점검으로 내실있는 안전심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정례회 의결 대비 잔걸음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21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보다 내실 있는 안전 심의를 위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8일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과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을 차례로 방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을 찾은 위원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 교육, 지진 및

강풍 체험 후 시설을 둘러보며 개선점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재난체험장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안전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도 "안전 관련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실시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위원들은 이어 청소년수련관을 방문, 현재 신축공사 중인 안산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성실 시공을 당부하고 청소년 진로상담 강화와 안전교육지원

청 및 지역 학교들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 수련관 청사 내 안전대덕 청소년 과학관의 홍보 강화와 수련관 앞마당을 주차장이나 청소년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정숙 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안전 심사를 진행해 왔고 이날 의결을 앞두고 현장에서 의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수원시의회 예정위 2조 규모 전년도 결산내역 심의

수원시의회의는 9일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정위)를 구성하고 결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구성된 예정위는 의회의 승인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2조3천9억여 원 재정규모의 전년도 결산내역을 10일까지 심의한다. 예정위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2조3천717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8천71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45억 원과 980억 원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이월액 1천772억 원과 순세입여금 3천130억 원은 전년도보다 205억 원과 234억 원씩 각각 감소해 시가 긍정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경기도 공고 제2015-5440호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5-41호

2015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지원개요

지원규모(예산) : 28억 원 내외, 과제당 1.5억 원 이내

2. 세부 지원내용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예산규모
기술혁신개발 (기업주도)	도내의 중소기업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1.5억 이내	1년 이내	28억원 (북부 지원 7.8억원 포함)

3. 신청자격 : 도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 지원분야별 세부 신청자격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 공고문 참조

4. 신청요령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3부 및 첨부서류)
2015.7.27(월) ~	7.27(월)~8.13(목) 18:00까지	8.10(월)~8.14(금) 18:00까지
http://pms.gstep.re.kr/	http://pms.gstep.re.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5. 사업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주 소)
주요 설명회	7. 21(화) 14:00	수원 광고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층 컨퍼런스룸1
경기 북부 설명회	7. 23(목) 14:00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2층 210호

< 문 의 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031)888 - 9937 ~ 9941

E-mail. gstep1@gstep.re.kr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 추경 선심예산 5조6000억 싹둑

정부안 11조8000억 중 세입결손 보전분 등 전액 삭감 예고
국채 4조 원으로 축소… “세입 부풀려 지출재원 짜맞추기”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추경정예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조2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추경안 11조8천억 원에 비해 5조6천억 원이 적은 규모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에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예산 5조6천억 원은 전부 삭감했다.

세출경정예산에서는 정부안의 규모를 유지하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뭄사태와 무관한 사업에 산 1조5천억원의 삭감해 메르스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5년도 추경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분과 도로·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제수입을 부풀렸다”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한 신규 국채 발행 규모 9조6천억 원 가운데 세입결손 부족분 5조6천억 원을 삭감, 4조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다음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를 가동, 7월을 넘기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메르스 극복예산 2조5000억 등 박, 추경 원안 통과 국회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면서 추경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될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면서 1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추경 용처와 관련,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 관광객 급감에대응해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 지원 및 관광 수요 진작, 유동성 위기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조2천억 원과 관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 1천 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서 유죄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오른쪽) 새정치연합 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뒷모습) 등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유승민 빈 자리 추대로 채우나

최고위, 내홍 우려 의견접근
원내대표 선출 닷새 앞으로

새누리당은 14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당 원내대표경선관리위원회는 9일 출범과 함께 서상기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가 중도사퇴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 선출선거가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원내대표직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 추

대 방식으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

표 대결로 갈 경우 친박과 비박계 세력이 또다시 충돌할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번 ‘유승민 사태’로 불거진 계파 간 내용이 장기화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김 대표는 회의 직후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의 의견만 있을 따름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차기원내대표 선출 준비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상황이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무당파’ 원유철 원내 사령탑으로 재임성 유력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14일로 확정되고, 합의 추대 형식이 유력한 가운데 친박계와 비박계 인사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계파 색이 강하지 않은 인사 중심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맥락속에서 평택 출신의 4선 의원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 의장은 계파색이 없어 친박과 비박 모두의 비토가 없는데다 원내 지도부 교체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한 친박 성향의 인물로 정해질 경우, 최고위원회

가 친박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계파색이 없는 원 의장으로 기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 의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20대 총선을 감안,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절대 요충지를 사수해야 하는 만큼 수도권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원 의장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원 정책위의장은 평택갑이 지역구로 15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뒤 16대, 18대, 19대 총선에 당선된 수도권을 대표하는 4선의 중견 정치인이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정병국(여주·양평·가평), 4선의 심재철(안양·동안), 4선의 이주영(경남 창원), 3선 홍문종(의정부), 3선의 주호영(대구 수성), 3선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3선 장운석(경북 영주)의원 등 의원 다수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교문위원장에 박주선(왼쪽) 의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노영민(오른쪽)의원을 선출했다.

투표에는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했으며 개표결과 박 의원은 169표를, 노 의원은 172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박 위원장은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

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은 국민행복의 원천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국가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장 모범적이고, 일하는 상임위로서 귀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무역·통상·자원·에너지·중소기업·특히에 이르기까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라며 “여러분의 해안을 모아 실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여의도중계탑

도북부 산단·신도시 안정적 물공급 한강수계 관로 조기착공 등 쟁결음

양주·동두천 등 경기북부 산단과 신도시에 생·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한강수계 3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발주 예정이었던 의정부 자일동~양주 광사동 구간에 대한 용수 공급 관로 공사가 올해 8월로 앞당겨져 시행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한강 하류권 3차 급수체계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용수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 업체 등을 위해 의정부 자일동~양주 광사동 4.9km 구간 공사를 오는 8월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잔여구간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와 관련부처장·차관 설득에 주력해왔다.
오는 2025년 기준으로 매일 약 10만5천㎡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주 검준공단의 경우 최근 가뭄으로 공업용수(440원/ℓ)보다 약 2배 비싼 생활용수를 사용해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양주 남면·검준·홍죽 산단 및 동두천 산단, 옥정·회천·광서 등 신도시에 안정적 물공급이 가능해져, 저렴한 공업용수공급을 통한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옥정·회천 지구 등 양주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의무교육비, 정부·지자체 부담 규정 마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의무교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해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의무교육 비용부담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



미비한 상태.
최근에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인 의무급식(무상급식)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급식 재원 부담주체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교육에 관한 기본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따른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관련 법체계를 정립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인 만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 의무교육 정신을 직접 구현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차별받고 눈치 보느니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기업 부담 줄이는 지방세 개편 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 국회의원 의원은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발생한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지방세법’ 개편 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5년(2014년 소득분)부터 신고서류가 대폭 증가했고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도 바뀌었으며 기업은 국세청뿐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납세협력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심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에게도 개인처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되도록 신고를 간소화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하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고자 했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부동산시장 훈풍 타고 상가분양 날개 활짝

투자자 관심 높아져... 경기도 내 올 2분기 물량 34% 늘어
LH 6월 물량공세 한몫... 단지 내 건물 가격도 32% 올라

동탄2와 하남 미사 등 경기도 내 유망택지를 중심으로 비수기에 돌고, 아파트 분양시장의 훈풍에 이어 상가 분양시장 또한 활기를 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는 총 86개 상가가 분양에 나섰으며, 이는 2010년 2분기(117개

상가)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저금리 여파,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 등으로 투자 수요자들의 상가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분양 물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동탄2, 하남 미사 등 도내 유망택지를 중심으로 상가가 공급

되며 상가분양의 입찰경쟁 또한 뜨거운 모습이다.

2015년 2분기 상가 공급은 전 분기 대비 34% 많았으며, 권역별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66%, 지방이 34%의 공급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단지 내 상가 공급이 크게 늘었다. 2분기 분양한 단지 내 상가는 35개로 전 분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일반 단지 내 상가 물량도 많은 편이었지만 6월에만 12개의 LH 단지 내 상가가 공급되면서

2분기 단지 내 상가 물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외 근린상가는 25개 단지, 기타 상가는 21개 단지, 복합상가 3개 단지, 테마 상가 2개 단지가 공급되며 모든 상가 유형이 전 분기보다 물량이 증가했다.

2분기 분양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621만 원으로 전 분기(2천679만 원)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유형별로 상가 공급 가격은 차이를 보였다.

2분기 단지 내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천135만 원으로 1천6

17만 원이었던 1분기 대비 32%가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대의 사상 최저 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당분간 상가 분양 시장의 활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금리가 낮다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투자하기보다는 대외적인 경제 상황까지 고려한 후에 투자에 임해야 하며, 가격의 적정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단통법에 내수 소비 쏠쏠 안산지역 제조업체 울상

휴대전화 시장 위축
상의, 규제 완화 건의

안산상공회의소는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및 멀티테크노밸리(MTV)에 위치한 휴대전화 산업 관련 1천여 기업이 수출 감소와 내수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 영향으로 국내 휴대전화와 시장이 위축되고 제조업체의 판매부진이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이어지며 부자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안산상의는 최근 긴급 설

문조사를 통해 관련 기업 21개사로부터 응답을 받은 가운데 응답 기업의 76%가 현재 체감 경기를 심각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으며 매출액이 30~50% 급감한 기업이 절반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안산상의는 또 그 주요 원인을 내수 경기 침체와 단통법 시행으로 진단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 개선을 건의했다.

안산상의의 관계자는 “안산상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건의와 안산지역 제품 구매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ihoilbo.co.kr

복날 음식, 인터넷 예약하세요

aT 사이버거래소 사전 접수
시중대비 40%가까이 저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는 9일부터 ‘복날 맞이 우수 농식품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예약판매는 여름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발굴 및 우수 농가의 홍보강화 차원에서 aT 사이버거래소와 지역농산물 온라인 장터인 농마트, CJ오마트 등 네트워크 시와 협력해 추진한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주요 상품으로 무항생제 삼계탕, 백숙용 오골계, 무항생제 오리로스구이, 백숙용 통 오리, 흥성 한우 사골 등 다양한 축산물과 바닷장어, 완도전복, 추어탕 등 수산물, 그리고 함안 수박, 김천 자두, 잡쌀, 건대추, 무농약 외송, 청도 아이스 홍시 등 농산물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산지 생산자 농식품을 직공급 해 중간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시중가 대비 10~4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예약주문은 이날부터 eaT마트(www.eatmart.co.kr), CJ오마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주문 상품은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경기도가 개최한 '경기 북부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상품 발굴 오디션'에 선정된 전병희 씨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화 밀거름

경기도, 오디션 개최... 디자인 가구 등 5개 선정
북부 제조기업과 협력... 생산~유통 과정 지원

경기도는 ‘경기 북부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상품 발굴 오디션’을 개최, 76개의 출품작 가운데 최종 5건의 상품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이하 북부 허브)’에서 열린 오디션에는 감성 조명 및 실리곤 소재 생활용품, 보드게임, 디자인 가구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이 선보였다.

이 중 ‘알루미늄 머플 체어(Aluminum Muffle chair 예비 창업자 전병휘)’가 대상을 차지했다.

알루미늄 머플 체어는 금속을 맡아서 고정하는 독특한 조립 방식을 가구에 대입한 디자인으로 심사위원과 참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 ▶사물인터넷을 활용 날씨를 알려주는 조명 ‘루미프렌즈(루미프렌즈·대표 김문준)’ ▶집게형 실리곤 찬합 뚜껑(A.de·대표 김승호) ▶3D 프린팅을 이용한 감성 조명 사진 및 액자(베네토라·대표 김주엽) ▶경기도 문화원형 활용 보드게임 ‘도굴꾼을 잡아라(예비 창업자 김대현)’ 등이 각각 2~5위에 올랐다.

입상자들은 총 1천500만 원의 오디션 상금과 향후 출품작의 사업화 및 기술지원, 생산, 유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협력 제조기업과 참여 기관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도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희망자들이 제작 기술과 설비,

유통, 판촉 역량이 미약하다는 것에 착안해 경기 북부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 필룩스, 위코홀딩스, 코리아보드게임즈, 심플라인·레이로우 등 4개사와 지난달 공동 창작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지원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 관련 법률 등 자문을 후원했다.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이달 하순 개소 예정이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접 CRC 빌딩 10~13층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총 1천368㎡로 스타트업에 위한 입주 공간 10곳(20㎡)과 3D 프린터·CNC(컴퓨터 제어 가공)·레이저 커터 등의 장비와 협업 공간을 갖추고 촬영 스튜디오, 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라운지 등의 편의 시설 등을 제공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농협 ‘고객사랑 안심통장’ 출시... 금융 사기에도 안심

농협 상호금융은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NH고객사랑안심통장’을 전국 지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가입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과 농협 상호금융지원본부장 하승봉 상무는 금융사기 예방 모범 농협인 안산 군자농협을 방문해 ‘NH고객사랑안심통장’에 가입했다.

‘NH고객사랑안심통장’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이 통장 가입고객이 피싱·해킹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하는 보증을 무료

로 가입해준다.

또한 보안성이 탁월한 ‘NH안심보안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1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출금거래는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토록 하는 등의 금융안전서비스를 금융원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과 고령자도 더욱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농협이 ‘NH고객사랑안심통장’을 출시하며 고객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이 전 금융권에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건강한 수돗물이 전하는 우리집 이야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부터
건강관리가 필요한 엄마와 아빠까지-
온 가족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K-water가 만드는 건강한 수돗물입니다

건강한 수돗물 K-water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넘어 미네랄이 균형있게 포함된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50여가지의
수질검사**

250여 가지 항목의 꼼꼼한 수질검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otal Care
Service**

방문 수질검사 및 옥내배관 내시경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수도꼭지수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를 'K-water'로 불러주세요

인천항만공사 출범 10년... 인천항 변화와 과제

컨~여객 글로벌 항만 입지 탄탄 서비스 경쟁력 높여 제2의 도약

신항 개장 등 인프라 확충
연간 교역액 두배 이상 ▲

배후부지 등 운영 안정화
2025년 세계 30위 ‘진입’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 이 기간 인천항은 ‘상전벽해(桑田碧海)’했다. 외항 시대를 맞아 남·북항과 인천신항 등 끊임없는 시설 및 서비스 확충을 통해 항세를 넓히고 있다. 2005년 출범한 공사도 이런 변화에 맞춰 행보를 해왔다. 민간 자율경영 체제를 구축한 공사의 지난 10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성과=공사 출범 당시 내항을 중심으로 남항 일부와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정도에 불과했던 인천항 부두는 남항, 북항, 인천신항 등 신규 인프라 구축으로 선석 수가 89개에서 126개로 늘었다. 내년 초에 인천신항이 추가 개장하고, 2018년 새 국제여객부두가 문을 열면 136개 선석의 중·대형 항만으로 항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년과 2012년에 조성한 아암물류 1단지(96만1천442㎡)와 북항 배후단지(56만5천㎡)는 인천항을 대표하는 경쟁력 높은 시장형 물류단지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2017년에 아암물류 2단지(257만1천㎡), 2018년 인천신항 배후단지(211만8천㎡), 북항 배후단지 북측 부지(17만8천㎡·옛 청라 준설도 투기장)이 각각 공급된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북인천북합단지(82만8천㎡)는 물류 및 산업단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2005년 공사 출범 당시 26개였



6월 개장한 인천신항 1-1단계 B터미널.

(사진=기호일보 DB)

던 정기 컨테이너 노선 서비스는 44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권역에 국한됐던 항로가 꾸준히 확대돼 아프리카, 러시아, 미국까지 서비스가 더 촘촘해지고 넓어졌다.

이와 함께 115만TEU를 기록했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4년 233만TEU로 2배 이상, 총 물동량은 연간 1억2천만t에서 1억5천만t으로 3천만t 늘었다. 연간 교역액도 57조2천억 원에서 119조9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여객 부문은 연간 152만 명이었던 연안·국제여객 수가 215만 명(2013년)까지 늘어났고, 3척에 불과했던 크루즈선 기항 횟수도 95회(2013년 기준)까지 급증했다.

▶과제=공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현재 세계 60위권인 세계 컨테이너 항만 순위를 2025년까지 30위권 내에 진입시킨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인천신항의 조기 완전 개장과 운영 활성화 지원, 항만 배후단지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목표를 위해선 우선 서비

스가 개선돼야 한다. 한·중 국제여객선사와 유커 등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따로 떨어져 운영되던 2개의 부두와 터미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 그 배후에 복합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사업을 통해 인천항 이용에 따른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인천신항의 완전 개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6월 개장한 인천신항은 2016년 초에는 A터미널이 개장하고 같은 해 하반기엔 현재 운영 중인 B터미널까지 완전히 개장해 운영에 들어간다.

문제는 운영 안정이다. 부두 운영과 마케팅 자원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빠른 조성과 공급을 위해 일부 부지를 집중적으로 매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항만 배후부지 조성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비율을 타 항만 수준에 맞춰 확보해야 한다.

배준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인천시 권한 빼앗는 공항시설법 인천공항 민영화 위한 꼼수인가

인천 시민단체 “국토부, 인근 부지 개발 민간에 대행 가능”
“지방공항 시설 등 활성화 취지 안맞아... 대상서 제외해야”

〈속보〉인천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법안(본보 7월 6일·7일자 7면 보도)이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우회적인 의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항시설법(안)에 대해 “(인천)공항 면적의 반이나 되는 도시개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에게 대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넘겨 주는 것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의 우회적인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항시설법(안)은 활주로와 터미널 등 인천공항시설을 제외한 주변 부지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인천공항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라

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을 보면 ‘제15조(개발사업의 대행)’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법의 이름은 공항시설법이지만 인천에 적용되면 신도시급(총 2천639만5천㎡) 이상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인천에 적용할 경우 공항 본연의 공항시설 건설과 운영보다는 도시개발에 욕심을 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발

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공항시설법에서 제외시키고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300만 인천 시민의 힘을 결집해 ‘범시민 철회 운동’을 강력하게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시설법과 인천공항 민영화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시민단체 주장대로라면 인천공항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로 공항 운영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안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빙수·맥주 즐기며 도심 속 휴가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구로호텔(www.gurohotel.co.kr)’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여름 패키지들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총 세 가지 패키지에는 여름을 맞

아 호텔에서 진행하는 여름 빙수 프로모션과 하이네켄 비어 페스티벌을 이용할 수 있다.

구로호텔의 여름 패키지는 도심 속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가족과 커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 내달 말까지 여름 패키지

플 등 대상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바캉스 핫섬머 패키지는 스탠다드룸 1박과 라스텔라에서 시원한 빙수를 즐기며, 트렌디한 여성들을 위

한 글로시 박스를 받아볼 수 있다.

하이네켄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비어 쿨섬머 패키지’에는 스탠다드룸 1박, 하이네켄 생맥주 4잔과 프라이드 치킨 또는 양념 감자 중 택 1이다. 하이네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도 증정하며 경품 추첨 응모가 가능하다.

이재훈 기자 ijh@khihoilbo.co.kr

인천공항공, 자카르타공항 상업 컨설팅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 상업시설 개발 컨설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제2공항공사(A

P2)가 발주한 이 사업은 33억 원 규모로,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17년 7월까지 24개월이다.

자카르타 공항은 연간 5천7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하는 인도네시아

의 관문으로, 급증하는 여객수요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4억8천300만 달러 규모의 제3터미널(연간 여객 2천500만 명 규모)을 내년 4월에 문을 연다. 안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청약 경쟁률 2.18대 1

올해 하반기 송도국제도시에 처음 공급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의 청약(1순위)이 선방했다.

9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1순위 청약에 나선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2천49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천468명이 접수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2.18대 1을 기록했다. 수요층이 많은 전용면적 59㎡ A 타입은 619가구 모집에 3천51명이 접수해 4.92대 1을 보였다.

640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84㎡는 1천185명이 청약해 1.85대 1일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72㎡도 507가구 모집에 635명이 접수해 1.25대 1로 청약이 마무리됐다.

반면, 59㎡B(641가구 모집) 타입은 511명이 접수해 130가구가 2순위로 넘어갔다. 88가구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101㎡도 6가구가 부족해 2순위에서 마감됐다.

인천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튜닝 어디까지 해봤니... ‘아트’가 된 자동차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 ‘2015 서울 오토살롱’에서 화려한 차림의 모델이 아트카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의 사랑으로 100년의 희망을 열어 갑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새로운 100년의 인천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인천항을 성장시키기 위해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공사 출범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인천항은 이제 연간 물동량 200만TEU, 여객 200만명의 글로벌항만으로 위상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인천항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10년의 사랑을 늘 새기면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INCHEON PORT AUTHORITY
TEL.032-890-8000 www.icpa.or.kr

동네방네

안산, 불법 유통광고물 모니터링

안산시는 주민의 자율적 신고를 통한 불법 유통 광고물의 상시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 유통 광고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법 유통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야간과 주말을 이용, 동시 다발적으로 게시 및 철거가 반복되는 등 관 주도의 정비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 광고물 모니터링단을 구성,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법 광고물 모니터링단은 생활감각정책 모니터링단과 공무원 모니터링단으로 구성, 1년간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유통 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 신고하게 된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 co. kr

가평군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점검

맑고 깨끗한 삶터·일터·쉼터를 이어가기 위한 특별 수질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가평군은 10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야영장 160여 곳을 대상으로 오수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hihoilbo. co. kr

자연보호 오산시협 가장친 정화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는 11일 오산전지류인 가장전에서 회원 100여 명이 함께 수종 및 수변 지역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에서 주관하고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참여 회원들이 수종 정화 활동반, 쓰레기 수거팀, 생태교란 생물 제거반 등으로 나뉘어 실시한다.

이번 정화 활동에 쓰일 장화, 청소 도구 등은 한강수계 기금으로 마련되고 부족한 부분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한 오산전 변에 약 800㎡면적의 꽃동산을 조성해 가꾸고 있고 초·중·고 환경봉사단인 ‘나을단’을 구성해 청소년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hihoilbo. co. kr

의왕시, 아동센터 순회 구강검진

의왕시 보건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 2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이번 순회 구강검진을 통해 평소 보호자와 떨어져 있어 치료를 하고 싶어도 의료가관 방문이 어려웠던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구강검진과 함께 적정 치료 및 충치 예방법, 구강건강 관리요령 등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hihoilbo. co. kr

부천보호관찰소 청소년 미술치료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한국통합예술심리치료센터와 연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위풍 당당! 자아 찾기!’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송모(18세)군은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윤일중 소장은 “불우한 가정환경, 학업중단 등에서 비롯되는 가솔, 폭력, 성매매 등의 사회적 위험환경에 노출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처우 전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 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 co. kr

구리시-건설·전략적 투자자 ‘GWDC 드림팀’ 꾸린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시, 현대건설·한국자산신탁 등 9개사와 MOU 체결

박영순 시장 “세계적 디자인도시로 성장 발전 확신”

구리시는 9일 오전 구리아트홀에서 국내 9개의 건설투자자(CI) 및 전략적 투자자(SI)가 참석한 가운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협력을 위한 MOU 조인식을 가졌다.

아시아 디자인 산업의 허브 도시를 목표로 구리시가 8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GWDC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참여하게 될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 A&C, 호반건설,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건영 등 7개 회사이며 부국증권㈜, 한국자산신탁(주)

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코앤드씨어썬씨에이트는 이들 9개 회사와 그린벨트 해제 고시 후 GWDC 조성사업에 대한 건설 투자 분야와 전략적 투자 분야에 관련된 제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사업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조건부로 심의가 결정돼 그린벨트 해제 고시를 위해 외국투자자 측이 7~8월 중 국내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해 일정 금액의 외국자본을 우선 유치



구리시가 현대건설 등 9개 회사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구리시 제공〉

할 계획이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최근 국내 경제가 침체돼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의 유치가 절실한 이때 MICE 산업형 디자인산업이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며 “GWDC가 조성되면 1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디

자인, 서비스, 물류, 관광 등)가 생기고 최소 2천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게 돼 세계적 디자인도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MOU 체결식에 참석한 A건설사 대표도 “제2한강의 기적을 대표할 창조경제에 참여하게 될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GWDC 사업이 완성되면 연간 60여 회의 중대형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엑스포 개최를 통해 매년 최소 18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우리나라를 찾게 돼, 연

간 약 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물론, 한국이 일약 아시아의 하스피텔리티 디자인산업의 중심국가로 떠올라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제2한강의 기적을 선도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윤덕진 기자 dsyun@khihoilbo. co. kr

가평군 예산 조기집행 ‘최우수’ 2년 연속 행자부 평가기관 선정

SOC 사업 등 중점 관리 성과

가평군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 상반기 조기 집행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 대상 예산 2천468억 원의 65.59%인 1천619억 원을 집행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꾀해 왔다.

1천619억 원 집행은 당초 목표 실적인 1천357억 원보다 262억 원이 많은 금액(목표 대비 119% 초과)이다.

가평군은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총괄반, 집행,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을 구성해 월 두 차례의 보고회를 갖는 등 집행의 효과와 속도를 높여왔다.

1억 원 이상의 사업과 서민 생활 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관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조기 집행의 상승효과를 거뒀다.

특히 전국적인 메르스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내수 경기가 침체된 6월 한 달 동안 635억 원(집행액의 39.2%)을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광역시, 도·시·군·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조기 집행, 민간 실집행, 3대 중점사업 집행, 예산규모 비율의 누적 추진실적 등을 평가했다.

군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기 극복을 위해

10월 말까지 조기 집행 목표 80%를 달성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계획된 재정사업에 속도를 붙여 집행을 앞당김으로써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조기 집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가평군은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hihoilbo. co. kr

인성 키우는 ‘5차원 교육’ 도입

청룡학원, 명문사학 발돋움

동두천고 등 산하 4개교

기초교육 강화 노력해

올해 안에 새 교정 착공



원동연 이사장.

동두천시 생연동 산 44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교법인 청룡학원은 지난 1959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자 故(고) 원중구 이사장의 건학 이념에 따라 설립됐다.

현재 법인 산하에 동두천고등학교(교장 정정자), 동두천중학교(교장 이기무), 동두천여자중학교(교장 감미자),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교장 정기숙)로 구성돼 있으며, 개교 후 지금까지 4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특성상 학교 발전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10년 전부터 시작된 전인격적 인성교육인 5차원 전면교육의 도입과 올해 시작되는 학교 이전 사업을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동두천 교육의 새로운 지평

을 열게 될 학교 이전 사업은 건축 허가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올해 착공 예정인 청룡학원 새 캠퍼스의 조감도. 1 한국문화영상고 2 동두천고 3 동두천여중 4 동두천중 5 다목적관 6 종합교육관 7 종합관.

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동두천중학교는 창의·인성 교육 강화를 통해 과학탐구 발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동두천여자중학교는 외국어 영역과 인성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특성과 교육 분야에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인성교육의 결과를 토대로 청룡학원은 교육 소외지역인 도서 벽지의 학교를 돕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연평도의 연평초·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 남서초교, 흑산초교, 하의중학교 등 현재 50여 곳이 넘는 학교와 화상 스마트 교육으로 5차원 전면교육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삼척 등 벽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를 돕는 일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기업의 역할도 컸다.

60년의 동두천 지역교육을 이끌어온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하게 될 청룡학원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의미 있는 일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원동연 이사장은 “남북 분단의 가장 큰 아픔을 갖고 있는 동두천 지역에 있는 청룡학원의 새로운 캠퍼스 부지에 통일교육을 위한 남북교육교류센터를 설립,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려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hihoilbo. co. kr

화성시, 농가근심 덜어주기 팔 걷어

농정과, 상습 가뭄지역에 급수차 3대 지원

화성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수도관리지역본부와 협력한다.

9일 시 농정과에 따르면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52% 수준에 불과하고 관내 저수율도 30% 내외로 작물 재배에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리불안전답이 많은 남양읍, 송산면, 서신면 일대가 긴급 용수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자원공사 수도관리지역본부와 협의를 통해 남양읍 문호리, 시리, 송산면 신천리, 고포리, 철곡리, 고정리, 서신면 전곡리 등 상습 가뭄 지역에 급수차 3대를 지원해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농업용수를 적시에 공급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hihoilbo. co. kr

농기센터, 옥수수·수수농가 멸강나방 방제 당부

화성시 관내의 옥수수 및 수수농가 일대에서 멸강나방 애벌레가 발견됨에 따라 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방제를 농가에 당부했다.

9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애벌레 결과와 팟탄면 하저리, 장안면 독정리, 우정읍 이화리 등에서 멸강나방(유충)으로 인해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멸강충의 크기가 3㎝ 정도이며 4㎝ 이

상 지라면 방제가 힘들어져 미리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멸강나방은 해마다 5월 하순~6월 중순경에 중국에서 날아와 잎에서 단맛이 나는 옥수수나 갈대, 벼 등 ‘화본과(禾과)’ 식물을 주로 먹는 해충이다. 일반적으로 옥수수 잎을 먹어치운 다음 바로 옮겨가 피해를 주고 있어 옥수수, 수수 등 재배농가들의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hihoilbo. co. 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 co. kr

수원 교통약자 특별택시 만족도 상승… 일반택시는 하락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특별택시(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통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86.1%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 69.2%보다 16.9%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일반택시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69.2%로 집계되며 전년보다 11.2%p 하락한 모습을 보여 시급한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객은 9천182명(올 6월 5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에 달하고 있음에도 상당인 8명에 불과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 co. kr

안산교육청, 연극 등 체험 프로그램 마련한 ‘꿈의 학교’ 개교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대회의실에서 꿈의 학교 학생 및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추진하는 ‘안산 가치 있는 꿈의 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이번 개교식은 ‘소망의 꿈 만들기’와 ‘꿈의 학교’로, 자신의 꿈을 담은 꿈을 친구들과 함께 주고받고 나누며 학생들의 꿈을 합쳐 그 꿈을 한껏 펼칠 수 있길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화상통화를 시작으로 문을 연 꿈의 학교는 중·고생 37명이 6개월 동안 예술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과서 문학작품을 스스로 각색, 연극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안산승마 힐링 꿈의 학교’ 개교식을 가질 계획이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 co. kr

‘메르스 그늘’ 벗고 파주병원 정상화

보호기간 끝나는 환자 39명 구리 카이저병원으로 이송
이틀간 대대적 방역소독…13일부터 외래진료 등 운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구리시 메르스 이송 환자 격리·보호로 외래 진료를 잠정 중단한 지 17일 만인 오는 13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간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날로 보호기간이 끝나는 환자 39명 전원이 구리시 카이저병원으로 재이송되

면서 파주병원도 외래진료를 재개하게 됐다.

파주병원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종 병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소독과 청소를 실시하고 13일부터 응급실을 비롯해 외래진료와 장례식장을 모두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파주병원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파주시민에게 감사하고,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파주시 메르스대책본부와 지역사회에서 이어진 온정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전했다.

시는 지난 6월 8일부터 메르스 비상대책상황실을 메르스대책본부로 격상시켜 운영해 24시간 비상 근무와 방역소독을 강화해 왔다.

김규일 파주시 보건소장은 “현

재 메르스 밀집 접촉자로 인한 격리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으며, 2주간 운전자단 외래진료 상담실도 운영을 중단한다"며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는 24시간 비상운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에는 보건·파주병원 외 메르스 격리·치료 대상자가 입원한 후 40여 개 관계 단체, 기업체, 시의회, 시민 등이 위문·격려품을 전해 오는 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kj@khihoilbo.co.kr

고양 상수도분야 보고회가져

수도시설과 팀장 15명 참석
유수율 향상 등 개선안 논의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적극적인 공기업 혁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소회의실에서 공기업 혁신의 '2015 상수도 분야 1인 1과제 상반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수도시설과 각 팀장 등 15명이 참석해 올해 초 제시된 '상수도 유수율 향상(201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달성·95% 이상)'의 역점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선

신 우수사례 도입에 대한 성과 발표가 열린 가운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설직 보강 및 유지관리 ▶저소득층 급수공사 확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수질검사 등에 대한 각 팀별 상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앞으로 상수도신도시 상수도 블록시스템과 하동·덕은 택지 개발지구 블록시스템의 연계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이울리 최근 증가하는 싱크를 대비 노후관의 근본적 정비 문제 등 핵심사업의 지속적 개선 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lbo.co.kr

동네방네

고양,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받아

고양시는 관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해 미신고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9월 시에 따르면 이번 기간 내 자진 신고를 신청하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지하수법 위반사항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책임을 전하 묻지 않는다.

특히 자진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 검사서 등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준다.

이병석 생태하천과장은 “남은 기간 홍보 안내문을 재발송해 미신고 지하수 시설 양성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미신고 시설이 이용하는 기간 내 꼭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경인통계청, 작물재배 면적 조사

경인지방통계청의 정보사무소는 지난 7일부터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군 관내 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2015년 제3회 작물재배 면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작물재배 면적 조사는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 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작물 생산계획, 양곡 수급 계획 수립 등 농업 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 5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20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3차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표본 조사구를 직접 답사해 벼, 고추, 땅콩, 참깨 등의 작물재배 면적을 확정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하남지역 수돗물 품질 적합 판정

하남시가 지난 6월 중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원수 및 각 가정 에 공급되는 수돗물 수질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원수의 경우 카드뮴, 비소, 수은, 납 등 해로운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총대장균 군, 병원성대장균 등 31개 검사 항목에 서도 “매우 좋음” 판정을 받았다.

수돗물의 경우는 일반 세균, 구리, 망간 등 58개 항목이 기준치 보다 아주 낮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 결과는 하남시 홈페이지나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j@khihoilbo.co.kr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과천 공무원·군부대, 지역상권 살리자 발길

구내식당 휴무 월 2회로 확대
인근식당 매출 상승효과 기대

과천시와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군부대원들이 메르스로 침체된 과천 관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500여 명이 근무하는 과천시는 이달부터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인근 상가 식당에 자율적으로 이용해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500여 명이 매일 이들 인근 식당을 이용할 경

우 월 700만 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계용 시장은 “2년 전 정부과천청사 주요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뜰스나 어려운 과천 상인들이 메르스 사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공여지책으로 90여만 원의 휴무일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 직원들이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매출 저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루 등 3천300여 명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두 팔 걷고 나섰다. 이달부터 총 5개의 구내식당 중 2개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식당에 대해 기존 월 2회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사 내 구내식당은 1곳당 1일 평균 60여 명, 월평균 2천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인근 식당에 돌아가는 매출 효과가 월평균 1천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과천 중

심상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도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중심상가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부대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인승 대형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들 3개 기관의 식당이 쉬는 날이면 인근 식당가는 전 날부터 예약이 줄고 있는 등 음식점마다 만원사례를 빚고 있다.

과천=이창원 기자 kgprns@kiholbo.co.kr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 co. kr

실명 위험 능소화가루
알고보니 잘못됐 정보

국립수목원 연구조사 결과
독성 거의 없어… 논란 일축

대표적인 여름 꽃인 능소화의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능소화 꽃가루와 관련된 논쟁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능소화 꽃가루 형태를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 능소화의 꽃·잎·줄기·뿌리 등에는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능소화 꽃, 잎 등 부위별 추출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리했을 때 모든 농도에서 9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즉, 꽃·잎·줄기 등에는 독성이 없어 약용으로 섭취해도 안전하다.

다만, 꿀샘에서 분비되는 꿀(화밀, 花蜜)의 경우 24시간 처리했을 때는 독성이 없으나, 48시간 이상 처리한 경우에는 일부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돼 오래된 꿀을 먹거나 장시간 피부 노출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flowering plant. The plant features large, dark, lobed leaves that are densely packed. Several clusters of small, light-colored flowers are visible, hanging from the foliage. The flowers appear to have a tubular shape with a flared, five-lobed corolla. The overall appearance is that of a shrubby or climbing plant, possibly a species of Solanum or a related genus in the Solanaceae family.

또한 능소화 꽃가루는 표면
에 가시 또는 갈고리와 같은
돌기가 있는 형태가 아닌 매
끈한 그물망 모양으로 바람에
날릴까 어려워 사람의 눈에
들어갈 확률이 낮고, 들어간
다 하더라도 피부나 망막을
손상시키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hihoilbo.co.kr

 **능소화(Campsis grandiflora K. Schum. 능소화과):** 예로부터 담배리어나 큰 나무 밑에 관상용으로 즐겨 심어 왔으며, 최근에는 도시의 건물이나 아파트, 도로변에 벽면 녹화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덩굴성 목본식물이다.

경동 제2015-1호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인천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 ① 사 업 명 :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② 사업위치 : 인천시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 ③ 대지면적 : 41,970.00㎡
 - ④ 사업규모 : 공동주택 1,161세대 및 업무시설
※상기 면적 및 규모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방식 및 입찰방법 : 확정지분제,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여 자격
 - ①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서 보는 등록사업자
 - ② 현장실영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 ③ 입찰참여규정에 의한 입찰참여신청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4. 입찰의 일시 및 장소
 - ① 일시 : 2015년 8월 11일(화) 17시
 - ② 장소 : 조합사무실(인천시 중구 경동 105번지 2층)
5. 현장설명회 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 ① 일시 : 2015년 7월 21일(화) 15시
 - ② 장소 : 조합사무실(인천시 중구 경동 105번지 2층)
 - ③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인 경우) 각 1부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1부
6. 기타사항
 - ① 국토해양부 고시 2012-458호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위반 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 ②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시공자선정 입찰참여안내서에 의합니다.
 - ③ 조합에서 제시하는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사항은 당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032-777-0192, 팩스 : 032-777-0193)

2015년 7월 10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 중 권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이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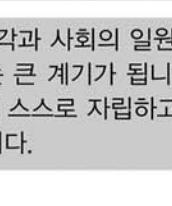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생각과 사회의 일원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사회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큰 계기가 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이드림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착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현수막사업은 시청, 각 구청,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시회복지시설 등 장애인협회 등 행사 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실사출력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현수막 및 배너 샘플


이 사업은 [광명복지재단] 외
아용사발생금으로
충당금에 상응하여
지원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69번길 27(십정동 576)

허브 아로마향 방향제

방향제사업은 자연스런 웃음처럼 허브 향이 면역계 기능을 증진시키고 종류에 따라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머리를 맑게하여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기정정효과와 악취제거에 탁월한 천연 허브오일 방향제입니다.

향은 정신건강에 좋은 **웰빙제품** 입니다.

향기 인테리어로 공간분위기 연출

아래냄새 활용에 탁월합니다

■ 새집, 새가구냄새	■ 생선비린냄새
■ 담배냄새	■ 화장실냄새
■ 지하실냄새	■ 찌든냄새
■ 음식냄새	■ 곰팡이냄새

향기종류 : **피칸넛향, 피넛향, 라벤다, 피치, 카피, 허브, 레몬, 오렌지**

향균

곰팡이

생선비린

애완동물

찌든냄새

화장실

작업 사진

EL 032-508-3772~3 | FAX. 032-710-6139 | <http://www.아이드림.net>

김하기의
하기C 칼럼



묵군 연산군의 난행을 소재로 한 19금 영화 ‘간신(姦臣)’이 막을 내렸다. 이 영화를 보면 연산군의 광기는 어머니 폐비 윤 씨의 불행한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폐비 윤 씨가 죽을 때 흘린 ‘금산(錦衫)의 피’를 본 왕은 마치 광이가 되어 그와 관련이 있는 선비와 궁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 관에서 꺼내 부관참시를 했고, 그의 딸들은 궁으로 잡아들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그런데 이런 화를 피해 간 한 지혜로운 오누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조선 성종 때 양친 허 씨인 허중(許琮)이라는 자가 있었다. 여친족을 정벌한 군공으로 우의정까지 올랐으며 그의 동생, 좌의정 허집(許集)과 더불어 형제정승으로도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하루는 새벽같이 두 형제에게 임금의 비상소집령이 떨어졌다. 왕비 윤 씨가 왕이 후궁전에 자주 드나드는 문제로 다투다가 왕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내버린 사건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왕비의 질투를 엄금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윤씨는 1차로 처벌을

한국인의 지혜

받아 폐비(廢妃)가 되어 사가에서 근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간신들이 폐비가 반성은커녕 왕을 원망한다고 모함하자 왕은 마침내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대신들을 소집했던 것이다.

당시 큰형 허중은 윤씨를 내쫓는 일에 반대하며 ‘선갑이 3일, 후갑이 3일(先甲三日,後甲三日: 주역에 나오는 말로 일을 신중히 처리하라는 뜻)’이라는 신 중론을 제기했다. 그런데 그 날 두 형제는 폐비 윤씨를 사사(賜死)한다는 말을 듣고 이래저래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나섰다가 지나가는 길에 누나 집에 들렀다. 누나인 신영석(申永錫)의 부인 허 씨는 지혜로운 여자로 평소에도 허중, 허집 형제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던 것이다.

누나는 두 동생에게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새벽같이 일찍 출근하는가?”

“폐비에게 사약(死藥)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연다는 명령이 떨어져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길입니다.”

“왕비에게 사약을 내리는 일에 대한 동생의 생각은 어떤가?”

“임금의 뜻인데 누가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때 누나가 두 동생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라서 알기 쉬운 일을 가지고 말하겠네. 어느 날 집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안주인을 죽이게 했지. 종들은 하는 수 없이 안주인을 죽였지만 훗날 그 안주인이 낳은 아들이 장성해 집주인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종들을 가만 두겠는가. 그 종들의 처지가 바로 두 동생의 처지일세.”

집 주인은 왕이고 안주인은 왕비 윤 씨이며 아들은 장자 왕이 될 원자(元孫)라는 거였다.

두 형제는 지혜로운 누나의 말을 듣고서야 ‘아차!’ 싶었다. 당시 허중·허집 형제는 지의금부사, 형방승지로서 사약을 내리는 행위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었던 것이다. 허중과 허집은 누나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 돌이 동시에 지금의 사직동(社稷洞) 근처 돌다리를 건너다가 일부러 개천 밑으로 굴러 떨어진 뒤 크게 다쳤다고 핑계를 대고 회의에 가지 않았다. 허씨 형제가 불참하자 왕은 하는 수 없이 좌승지 이세좌(李世佐)를 보

내 윤 씨를 사사케 했다. 이세좌의 부인은 남편이 사약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두렵구나. 어머니가 죄도 없이 죽음을 당했으니 아들이 훗날에 어찌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 자손이 종자가 남지 않겠구나.”

과연 부인의 말대로 훗날 연산군에 의해 이세좌의 온 집안이 삼대까지 멸족을 당했고 그 회의에 참여했던 대신들 또한 화를 면치 못했다. 반면 허중 허집 두 형제는 지혜로운 누이의 말을 듣고 다리에서 떨어져 화를 면했는데, 그 후 종로구 사직동의 다리를 종점교(踪蹕橋)라고 불렀다.

누이의 지혜로운 말 한 마디가 없었다면 두 형제의 죽음과 더불어, 이후 양친 허씨 가문에서 나온 허준의 동의보감, 허균의 홍길동전, 허충의 부인에서 비롯했다는 진도홍주도 맛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칼럼니스트/작가〉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민참여 보도사업의 일환입니다.

서늘한

공재광 시장 약속지키다

공재광 평택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지난 5월 15일 충남에 거주하는 68세 남성이 발열과 기침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삼성병원에 전원한 후, 5월 20일 메르스 확진 진단을 받았다. 전국을 발각 뒤흔들었던 메르스 첫 환자가 평택시에서 발생, 평택시의 모든 음식점, 병원, 은행 등이 마비상태에 이르는 혼란이 발생했다.

공 시장은 지난 6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가 평택시에서 뿌리가 뻗히는 그

날까지 퇴근하지 않고 시청 내에서 숙식을 해가며 24시간 방역을 진두지휘 해왔었다.

평택에서 메르스 환자가 0명이 되던 지난 5월 마침내 공시장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퇴근할 수 있었다. 한 달 만이다. 평택시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많은 정치인들과 학교인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7개부처 장차관 등이 평택시를 방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는 5번 이상을 송탄 국제 중앙시장과 송북전통시장, 통복시장 등 메르스가 확산될 때 평택관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46만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메르스

를 극복한 평택시와 정부의 노력으로 국·도비 교부 및 내시 지원 등 평택시 제2회 추경 조기편성 118억 원을 세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성장 지원범위 확대에 40억원,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0억원, 전통시장 마케팅 관측비 및 특성화사업에 4천6백만 원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예산과 힘을 쏟고 있다. 평택시의 노력으로 8일부터는 관내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단 1명도 생기지 않았다.

공 시장과 시민,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메르스의 위기 대처 능력을 보면 보스가 아닌 리더인 공재광 시장과 46만의 시민과 1700여 공직자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평택=김진태기자〉

전성군 알~리뷰 농촌



농촌 놀이터 복원을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농촌체험을 많이 간다. 체험은 사람을 키우고 운명을 만들 수 있으며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해봤을 것이고, 그 체험에서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사람들을 목격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마을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삼 십리 길을 걷고 뛰어야만 했다. 굽이굽이 산등성이를 돌아 꾸불꾸불한 논둑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학교지붕이 희미하게 보였던 기억이 난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중간 치기 하기에 적당한 감나무 곁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곳은 자연이 선물한 농촌놀이터였다. 지금이야 2차선 아스팔트길이 정든 시골길을 대신하고 있지만, 70년대 등하고 길의 풍경은 그야말로 어머니 손길처럼 따스하기만 하다.

잠시 사무실 창밖에서 보이는 바람이 살짝 땀을 스치더니, 이어 풀벌레 소리가 시골학교 운동회 속으로 폭 빠져지게 만들었다. 아마 작년 가을 운동회가 맞을 것이다. 엄격한 정복 때를 이

마에 두르고 줄지어 이동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모든 행동에서 단 한 아이도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분명 운동회 연습을 많이 한 모양이다. 전체가 지켜야 하는 어떤 규율에 따르려고 모두들 부지런했다. 이 같은 약속 지키기가 저절로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철저히 연습한 결과였다. 그리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운동연습이 어떤 일에 능숙해지기 위한 단순한 뇌풀이라면, 학교교육은 운동 연습으로 얻은 능숙한 움직임을 창조해 낸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반면 도시아이들은 사뭇 다르다. 율봄 딸아이 운동회를 보면서, 시골 초등학생들의 운동회와는 아주 다른 느낌을 받았다. 운동회 연습은 시골아이들 못지않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줄에서 옆으로 벗어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실 도시 아이들은 컴퓨터와 지내는 시간이 많고 방과 후에도 각종 학원 수강으로 공부에만 매달린다 보니 서로 어울려 마음껏 뛰어놀만한 시간이 많지

는 않다. 이처럼 한창 나이에 제대로 놀지 못하고 공부에만 쫓기다 보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달라가고 심지어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도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도시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농촌체험 학습이다. 비록 도시에 살지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연과 가까이 만나게 해주고 싶은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은 처음엔 진흙탕에 들어가려 하지 않지만, 나중엔 아예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말랑말랑한 진흙의 촉감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농촌체험 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초등학교의 70% 가량이 농사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는 농촌체험 학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학습시간’이라는 과목을 신설, 정규 교육의 하나로 편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자원에서 황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촌 운동’이 초·중·고교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에 맞는 농촌문화체험 농촌자원봉사 등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놀이터가 복원되어야 한다. 처음 보는 아이들도 금세 친해지는 아름다운 곳, 편안하고 웬지 기분이 좋아지는 곳, 연인이랑 친구랑 함께 있으면 사랑과 우정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곳, 부모 같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 낯선 사람끼리도 대화의 끈을 연결해 주는 곳, 누구나 그런 농촌을 좋아하게 되는 그날까지.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기호일보 www.kihoilbo.co.kr

등록번호 인천71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 · 발행인 서강훈 / 편집 · 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훈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9 연합뉴스 빌딩 4층
경기북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권축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판매국 032-761-0008

보급문의 032-761-0002

편집국 팩스 032-761-0011 전산실 032-761-0009
경영·사회부 032-761-0004 재판부 032-761-0013
문화·체육부 032-761-0005 출판부 032-761-0008
편집부 032-761-0006 포토기호 032-761-0001

검 단 032-563-0022 중 구 032-772-4909 부 천 010-5356-8211 신 갈 031-285-2283
계 앙 032-547-5947 강 화 010-3330-5204 서 울 02-313-5962 처 인 031-333-1112
남 구 032-882-2547 가 평 031-582-0478 성 남 031-757-8948 의정부 031-845-4200
남 동 032-421-1966 고 양 031-962-5360 수 원 011-242-6004 이 천 031-634-3312
동 구 032-764-2775 인양·괴천 010-6354-3259 시 흥 010-3218-8724 파 주 031-941-4513
부 평 032-526-9400 광 명 02-2688-3239 안 산 010-5313-5329 평 택 031-652-9966
석 남 032-576-4191 광 주 010-5204-3470 안 성 031-652-9966 포 천 031-535-5806
송 도 032-831-0797 구 리 010-6361-8608 양 주 031-845-4200 하 남 031-793-4142
연 수 032-811-6911 군포·의왕 031-394-0446 양 평 010-8916-2106 발 안 031-352-5265
연 안 032-887-7355 김 포 031-997-3030 여 주 031-885-3627 봉 당 031-297-8086
연 회 032-561-4189 남양주 031-511-4434 연 천 031-834-1307 화 성 010-9274-3466
영 중 032-743-2990 동두천 031-865-2557 오 산 010-9274-346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외부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냉난방 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하세요.**

의왕시청

남양주시청

양주시청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수명이 오래가는
명품 고급방수”**

용인시청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영등포경찰서

2014년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주요실적

SAMSUNG 삼성전자로직

인천소방안전학교

Q우기

국립시정소년수련관

경인IT고등학교

안양부안초등학교

송전중학교

용진부천산업조합

경기도농협하남소방서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블로그<http://blog.naver.com/waterproof01>

www.IPALG.co.kr

인천·부천
남수원·화성
북수원
양평·용문

(032)471-6020
(031)233-8061
(031)241-6920
(031)771-7782

안양·안산
고양·일산
의정부
남양주

(031)422-1237
(031)907-6029
(031)872-5576
(031)594-4416

과천
광명
성남
하남

(02)502-0494
(02)2625-7904
(031)733-4416
(031)734-4417

안성
의왕
평택
오산

(031)676-2885
(031)241-6921
(031)657-0423
(031)372-0893

구리
포천
양주
파주

(031)567-5576
(031)531-5567
(031)842-5576
(031)947-5576

동두천
김포
용인
이천

(031)861-5576
(031)907-6029
(031)322-7751
(031)636-7783

광주
곤지암
가평
춘천

(031)767-0470
(033)243-1728
(033)241-8954

지난 5월에 메르스 감염환자가 우리 나라에 입국해 거의 두 달간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발생 당시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던 것들이 때면 그렇듯이 이번에도 기억 속에서 '그때 그랬지'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메르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건·의료기관을 찾는 행위, 간호 행위,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는 행위, 남을 배려하는 행위 등을 거울 보듯이 추적하고 관찰하고 문제를 분석하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한국 사람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간병하고 방문안을 하던 것이 감염병을 계기로 문제가 있다고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잊지 말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바람에 세계 보건기구 관계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병원과 관련요인에 대한 조사를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함께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미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적하였고 보건당국에서도 인정하였다. 그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금요논단

박정모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번 감염병은 보건당국만 잘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좀 탈피해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본다. 너무 적극적이어서 나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격리대상자가 규격을 어기고 여행을 가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접촉을 한다거나 이미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모르게 만든다거나 하는 무책임한 행동의 물자각한 시민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알고도 싶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이 국제적

인 감염병의 특징이다.

감염병 관리의 기본 철학은 공공에 대한 안전이다. 소수를 격리시켜서 치료하고 접촉자를 격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들은 누구에게서 얻었던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를 일정기간 포기해야 한다.

이때에는 다수의 안전에 대한 정의가 우선이다. 이 때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시킬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고 민원을 낸다고 한다면 법정감염병 관리는 매우 어려워지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두 달간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생각하고 절제하고 국가의 지시에 따라주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여 더 많은 손실과 혼

란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처음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을 밝히지 않은 행위부터 시작하여 너무 많은 사건들이 개개인이 혹은 기관이 다수의 공중의 안전 및 보건보다 앞선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기침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행위, 엮을 때에는 손으로 가리면서 기침하는 행위,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자신의 팔을 들어서 팔에 기침하는 행위 등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공중예티켓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에서 시작하여 끝난다.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 감염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고 주로 원내감염으로 마무리 되면서 병원 채신, 보건·의료체계의 채신, 간병문화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우선 우리의 공공의 안전, 공중질서, 공중보건을 위해서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본철학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다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진정한 오산의 발전과 비전을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예방



이권재 <오산지역 발전포럼의장>

8일 오전 7시 30분. 오산의 한 컨벤션웨딩홀에서 오산지역 상공인들의 정기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은 내빈을 포함 지역상공인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연사로 이 지역 국회의 원인 3선의 안민석 의원이 초대됐고, 이원향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안 의원이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것 외에 더욱 관심을 끌었던 것은 ‘오산의 발전과 비전’이란 그의 연설 내용 때문이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안 의원이 갖고 있는 오산에 대한 발전 비전이 무엇인지 모두들 궁금해 하는 눈치였다. 행사 시작과 함께 안 의원은 약 60여 분간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오산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이어 갔다.

특히, 안 의원은 오산의 ‘밥과 꿈’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오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산성과 오산전을 탈바꿈하고 오색시장 활성화, 테마공원 조성, 유엔 초전비 평화공원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나자 상공회

의소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오산발전포럼 이권재 의장(새누리당 전 오산시장 후보)의 질문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에 따른 안 의원의 책임론이었다.

이 의장은 질의에서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시민 형세 7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고, 유치에 실패한 이후 현재까지도 주말농장으로 이용되는 등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엄정난 시민 형세를 낭비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고 몰아 붙였다. 또한 이 의장은 “탐동, 누읍동, 가장산업단지과 취소된 세교3지구 70~80만평을 연계 개발해 평택의 200만평의 삼성전자, 진위면 40만평의 LG전자 산업단지나 수많은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제안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누가 잘했니 잘 못했니’ 하는 등의 격한 논쟁이 오간 모습이 씩 좋아 보이지는 않았으나”면서 “그러나 시민을 대표한 공당의 국회의원이었고, 3선급의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효정 <인천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순경>

코미디 프로에나 나올법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아직도 속는 사람이 있겠으나 심했지만 여전히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갈수록 자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경찰과 금융기관이 긴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역에도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 다른 범죄와 다르게 검거하기가 어렵다. 또 범인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태에 놓여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방이 더욱 중요시 되는 범죄이다.

특히 노인들이 이자가 낮아도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 조직에 이용되고 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위험하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간박감을 조성한다.

감정적 압박으로 이성을 잃게 만들어 계좌 이체하거나 또는 현금을 찾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는 수범으

로 돈을 행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로 가정파탄과 노후 생활을 위태롭게 만들뿐 아니라 멍청하게 당했다는 자괴감으로 정신까지 황폐해진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계좌정보 뿐만 아니라 특히 돈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나 노인정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순찰 중 만나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속 발생 되고 있다. 이에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강구에 고심 중이다.

일선에 있는 경찰과 금융기관은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보다 세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국민들은 조금이라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시 설

근로자 생각하는 최저임금 돼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한 시간 6천30원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협의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은 겪었는데 확정 금액을 놓고도 노사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첫 6천원대 최저임금이라는 점이나 최저임금을 시급과 함께 월급으로 함께 적도록 한 것은 성과로 여겨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6천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5천 580원 대비 8.1% 인상된 금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월제 근로자 기준 126만270원이다. 2014년에는 7.2%, 2015년에는 7.1%의 인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했다. 여야 정치인들마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열망이 제기하면서 노동계는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내세우며 분위가 띄우기에 나섰다.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노동계의 기대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화한 6월 말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하고 그리스 사태로 세계 경기마저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경영계의 목소리에도 점차 힘이 실리게 됐다. 노동계가 주장한 대폭 인상은 거부했지만 올해 인상을 7.1%보다 높은 8.1% 인상을 적용하고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6천원대에 올려놓았다.

사실, 최근 10년간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불과하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여론은 실제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있었으나 아직 최저임금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을 기대한다.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돼야

최근 정보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정보 소외계층이 모바일 스마트 환경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무선 인터넷 환경이 융합된 스마트 사회가 도래되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기기가 등장했다. 더불어 터치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활용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정보사회의 조성으로 올 1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천80만 명을 넘어섬, 이제 개인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는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기기가 있더라도 활용능력이 낮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농어민·장애인·장노년층·저소득층 등 4대 정보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57.4%에 불과했다. 또한 영역별 스마트 정보화 수준은 인터넷 접속 기기의 보

유 여부를 평가하는 접근 영역이 78.4%, 실제로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보는 활용 영역이 55.9%로 나타났다.

특히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의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활용영역의 정보화 수준은 42%에 불과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화 교육, 정보화기기 개발·보급 지원, 웹 접근성 제고,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데스크톱PC 기반의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 모바일 인터넷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정보격차 해소 추진 대상에 모바일 스마트 기기도 포함해 정부가 스마트폰 이용 교육, 스마트폰 보급 지원, 웹 접근성 보장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소외계층의 스마트 정보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겠다.

100% Natural Skincare System for Sensitive Skin



전국대리점모집
www.purifree.com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발명특허기술



PURIFEE
02-2648-9778



Purifree
퓨·리·피

소중한 우리 아기피부에..... 아직도 계면활성제 비누를 사용하십니까?

퓨리피 내추럴 스킨케어 시스템은 계면활성제는 물론 어떠한 화학물질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특허기술과 넥서스의 제조 노하우가 만든, 영·유아가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는 명품 한방천연비누입니다.

당신의 피부행복을 퓨리피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텔레비전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한국의 밤상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 가족 11:00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11:55 바른말 고운말	6:00 2TV 아침 8:00 KBS 아침 뉴스 타임 9: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9:40 시간을 달리는 TV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5:00 MBC 뉴스 5:10 오늘 플러스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 드라마 〈이브의 사랑〉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 뉴스 9:45 기보 좋은 날 11:00 MBC 파워매거진	5:00 2015 US여자 오픈 골프 1R 6:00 모닝와이드 <1~3부> 8: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9:10 좋은 아침 10:0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00 와이드 ASIA 〈두근두근 아시아〉 6:50 TV주치의 7:05 독특한 연예 뉴스 7:45 OBS 뉴스 8:15 발도食客 8:45 미디어 공감 좋은 TV 9:45 OBS 뉴스 10:05 드라마 극장 <유나의 거리〉 11:15 Music & Movie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5:00 EBSe 생활영어 40 회화과정 6:10 명의 7:00 부릉! 부릉! 브루마즈 3 책과 땅 8:00 명탐정 피트 35 한글이 아호2 50 헬로 코코몽 9:15 곤 4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20 하나뿐인 지구
[10]						
[12]	12:00 KBS 뉴스 1:00 열린채널 1:30 영상앨범 산 1:55 시청자 클럽 우리사는 세상 2:0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특별 생방송 헬컴 투 광주 2:3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여기는 광주-	12:50 우리 동네 예제능 2:00 KBS 뉴스타임 2:10 인간극장 스페셜 2:50 생활의 발견 3:45 후토 4:10 누가누가 잘하나 5:10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40 세상의 모든 다큐	12:00 MBC 뉴스 12:20 주말특별기획 〈여왕의 꽃 -33~34화-〉 2:30 푹?푹! 키즈 스킵 3:00 MBC 뉴스 3: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3:40 헬로키즈 아라! 동물탐험대 4:25 MBC 일일 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5:00 MBC 이브닝 뉴스 5:10 2014 MBC 경영평가결과보고	12:00 SBS 12 뉴스 12:50 불타는 청춘 2:00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오픈 1R 4:00 SBS 애니 갤러리 4:30 물은 생명이다 5:00 SBS 뉴스파라이드 5:30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2:05 아웃도어 클럽 〈풍천노숙〉 1:05 꿈꾸는 U 2:05 행복 부동산 연구소 2:35 OBS 애니월드 2:45 OBS 뉴스 3:05 우리끼리 TV 3:30 TV 주치의 3:4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 극장 〈유나의 거리〉	12:00 EBS 정오 뉴스 20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 1:40 한국사 시간여행 2:00 트라투트 30 미션 마로봇 3:00 드라마 길들이기 4:20 모피와 친구들 5:10 헬로 코코몽 50 명탐정 피트
[4]	5:00 KBS 뉴스 5:20 시사선단					
[6]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클럽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0 독특한 소비자 리포트 8:25 일일 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6:30 뮤직뱅크 7: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8:30 VJ 특공대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7:55 MBC 뉴스데스크 8:55 MBC 일일 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6:20 민영방송 공동기획 청영스타 7:20 일일 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00 SBS 8뉴스 8:55 궁금한 이야기 Y	6:55 휴먼로드 360° 지구 한 바퀴 7:45 OBS 뉴스 M 8:25 오늘의 월드뉴스 8:55 독특한 연예뉴스	6: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7:0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50 장수의 비밀 8: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50 하나뿐인 지구
[9]	9:00 KBS 뉴스9 10:00 KBS 다큐1 10:55 국민대합창 우리歌 11:00 KBS 뉴스라인 11:40 생방송 심야토론 1:0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하이 라이트 2:00 궁금한 일요일 정영실쇼 3:00 이웃집 찰스	9:15 후계자 10:35 오렌지 마말레이드 11:40 유희영의 스케치북 1:00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9:30 리얼스토리 논 10:00 세 바퀴 11:15 나 혼자 산다 12:40 MBC 뉴스 24 1:0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10 마이 리틀 텔레비전 스페셜 2:3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3: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30 늘 푸른 인생	10:00 정글의 법칙 11:25 불타는 청춘 12:45 특별기획 〈너를 사랑한 시간〉 2:55 2015 US 여자 오픈 골프 2R	9:45 외 이맛이야 10:40 OBS 켄치 뉴스라인 11:05 프리미어 스포츠피셜 FLW 12:05 여행 로드 도쿄 도시책 12:35 폰스타 전당포 사나이들 1:25 Music & Movie 1:55 인생열전 〈살 맛 나는 세상〉	9:30 한국기행 50 명의 10:45 고전 영화 극장 〈옛날 옛적 서부에서〉 1:15 한컷의 과학 1:30 시네마 천국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KBS 네트워크 참 TV 6:00 KBS 뉴스광장 7:50 남쪽의 창 8: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9:30 KBS 뉴스 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30 행복한 지도 11:00 사랑의 가족 11:55 솔터	6:00 국민대합창 우리歌 6:20 다큐 공감 7:10 나를 돌아봐 스페셜 8:20 특파원 현장보고 9: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10:10 영화가 좋다 11:20 후계자	5:00 우리가족 우리문화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7:30 MBC 월드 리포트 8:00 경제매거진 M 8: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9:50 진짜사나이 스페셜 11:00 찾아라! 맛있는 TV	6:00 토요 특집 모닝와이드 〈1~3부〉 8:40 영재발굴단 9:45 동상이몽 관참야 관참야 10:50 접속! 무비월드	6:00 여행자 바다 野 6:50 TV주치의 스페셜 7:50 OBS 애니월드 스페셜 8:50 氣전 차방전 100세 무드 9:50 BBC 휴먼기획 〈마다가스카르〉 10:45 멜로다큐 〈가족〉 11:45 OBS 뉴스 11:55 로드 다큐 〈만남〉	5:0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 국어 30 만나고 싶습니다 6:00 희망동경 30 다문화 사랑 7:00 마사의 꿈 30 풍선코끼리 발루뽀 8:00 코코쵸3 30 모여라 댕댕댕 9:00 로보카 놀리 30 봉구야 말해줘 10: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50 이면! 스페이스정글 11:00 지파타이스 30 돌진!슈퍼가정부와 위험한동거 12:00 최고의 요리비결
[10]						
[12]	12:00 KBS 뉴스 12:10 국악 한마당 1: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2:00 헬로카봇2 2:15 솔지마 정신줄2 2:30 여러 이야기2 3:00 야생일기 3:15 KBS 다큐1	12:40 게그콘서트 2:15 슈퍼맨이 돌아왔다 3:55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12:00 MBC 뉴스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30 수목 미니시리즈 〈엄을 걷는 선배 1~2화〉 3:35 MBC 뉴스 3:45 슢! 음악중심 4:55 우리 결혼 했어요	12:00 SBS 뉴스 12:10 특별 기획 〈너를 사랑한 시간〉 1:15 월화 드라마 〈상류 사회〉 2:30 런닝맨 3:30 SBS 뉴스 3:45 슢! 음악중심 5:00 마이 베이비	12:50 행복 부동산 연구소 리포트 1:50 OBS 시네마 〈유덕화의 블라인드 디렉티브〉 4:05 와이드 블랙박스 4:45 OBS 뉴스 4:55 여행 로드 다큐 도시책 5:25 아시아 TOP5 5:55 오늘은 경인세상	2:30 나눈 0700 3:00 사선에서 3:50 청춘! 세계대전기 4:45 세계의 눈 5:35 한컷의 과학 50 정학퀴즈
[4]	4:10 대하드라마 〈징비록〉 5:00 KBS 뉴스 5:10 청년취업프로젝트 내 일을 부탁 해					
[6]	6:00 동행 7:00 KBS 뉴스 7:10 특집 해안 다큐멘터리 8:00 8. 15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5:5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7:55 주말 연속극 〈파랑새의 집〉	6:25 무한 도전 7:55 MBC 뉴스데스크 8:45 주말 드라마 〈여자를 울려〉	6:25 놀라운 대회 스타! 킹 8:00 SBS 8 뉴스 8:45 동상이몽 관참야 관참야	6:45 쇼킹 70억 7:45 OBS 뉴스 M 8:10 OBS 스페셜	6:40 한국기행 8:15 다문화 고부열전
[9]	9:00 KBS 뉴스9 9:40 대하드라마 〈징비록〉 10:3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12:00 콘서트 7080 1:00 KBS 뉴스 1:05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하이 라이트 1:05 T 티원	9:15 연애가 쏠개 10:25 청춘 FC 형그리 일레븐 11:30 인간의 조건 - 도시 농부 12:50 영화가 좋다	10:00 주말 특별기획 〈여왕의 꽃〉 11: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12: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35 스포츠 매거진 2:3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25 경제매거진 M 4:15 그린실버 고행이 좋다	10:00 특별기획 〈너를 사랑한 시간〉 11:10 그것이 알고 싶다 12:10 심야서당 <3~4화> 1: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5 2015 US 여자 오픈 골프 3R	9:10 전기견의 씨네뮤직 10:10 OBS 시네마 〈킬러 엘리트〉 12:10 프리미어 스포츠피셜 FLW 1:05 거대건축의 비밀	9:05 세계 건축문 아틀라스 10:35 장수의 비밀 11:05 세계의 영화 〈돈키호테〉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6:00 KBS 뉴스 6:10 생로병사의 비밀 7:05 TV 회고록 올림 8:00 KBS 뉴스 8:10 일요일이든 9:00 농촌 드라마 외 열매 10:00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10:55 TV쇼 진품명품 11:55 솔터	6:00 야생일기 6:10 생생 정보 스페셜 7:00 KBS 일일 뉴스타임 7:40 영상 앨범 산 8:10 제인 지안 도시탈출 9:00 1박 2일 10:35 출발! 드림팀 시즌2 11:45 해피투게더 스페셜	5:00 여행자 바다야 5:50 늘 푸른 인생 6:20 시사여행 그랜드 그랜드 7:00 MBC 뉴스 7:10 시사토끼 이슈를 말한다 8:00 해피 타임! 9:15 복면가왕 스페셜 10:4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5:00 2015 US 여자 오픈 골프 3R 7:2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8:20 식사하셨어요? 9:30 TV 동물농장 10:50 정글의 법칙	6:00 사람, 산 6:50 OBS 초대석 8:00 위대한 자연 8:55 아웃도어 클럽 〈풍천노숙〉 9:55 폰스타 전당포 사나이들 10:45 즐겨찾기 영화일주 11:45 OBS 뉴스 11:55 쇼킹 70억	5:0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 국어 30 리얼 체험 토크 6:0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30 장수의 비밀 7:00 바오방섬의 파파오 30 출몰! 슈퍼왕스 8:00 뽀롱뽀롱 뽀로로 30 모여라 댕댕댕 9:00 두더지동 40 명탐정 피트 50 글로벌 가족정착기 10:2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50 정학퀴즈
[10]						
[12]	12:00 KBS 뉴스 12:10 전국 노래 자랑 1:20 스카우트2 2:10 다큐 공감 3:00 대하드라마 〈징비록〉 3:50 세계인 스페셜 4:05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여기는 광주-	1:15 청춘FC형그리 일레븐 2:20 주말 연속극 〈파랑새의 집〉 4:50 해피 선데이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15 월화 특별기획 〈화정 -25~26화-〉 3:35 MBC 뉴스 3:45 썬선 TV 연예통신 4:50 일밤 〈복면가왕 / 진짜 사나이〉	12:00 SBS 뉴스 12:10 특별기획 〈너를 사랑한 시간 -5화-〉 1:15 월화 드라마 스페셜 〈기만 -13~14화-〉 3:30 SBS 뉴스 3:40 SBS 인기가요 4: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 / 런닝맨〉	12:55 리얼 대탐험 〈라스트 헌터〉 1:50 OBS 시네마 〈킬러 엘리트〉 3:55 휴먼로드 360° 지구 한 바퀴 4:45 OBS 뉴스 4:55 다큐 드라마 〈빅 호스토리〉 5:50 올림피아드 〈이것이 인생〉	12:30 국한직업 1:20 명의 2:15 일요시네마 〈백 투더 퓨처〉 4:45 세계의 눈 5:35 세계대미기행
[4]						
[6]	6:00 열린 음악회 7:00 KBS 뉴스 7:10 특집 해안 다큐멘터리 8:00 궁금한 일요일 정영실쇼	7:55 주말 연속극 〈파랑새의 집〉	7:55 MBC 뉴스데스크 8:45 주말 드라마 〈여자를 울려〉	8:00 SBS 8 뉴스 8: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6:50 감성여행 우리끼리 만난 세상 7:45 OBS 뉴스 M 8:10 연예 매거진	8:15 EBS 다큐 프리임
[9]	9:00 KBS 뉴스9 9:40 대하드라마 〈징비록〉 10:30 역사지평 그날 11:20 취재파일 K 12:00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하이 라이트 1:00 KBS 뉴스 1:05 문화비행기 더 콘서트	9:15 게그콘서트 10:55 다큐멘터리 3일 11:55 오렌지 마말레이드 1:0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킨	10:00 주말 특별기획 〈여왕의 꽃〉 11:15 시사매거진 2580 12:05 경찰청 사람들 2015 1:20 나눈 행복 스페셜 2:25 늘 푸른 인생	10:00 특별기획 〈너를 사랑한 시간〉 11:10 SBS 스페셜 12:10 자기가 - 백년손님 1:25 순간포착 스페셜 2:35 2015 US 여자 오픈 골프 FR	9:10 명불허전 10:10 OBS 시네마 〈유덕화의 블라인드 디렉티브〉 12:25 전기견의 씨네뮤직 1:25 OBS 스페셜	11:00 한국영화 특선 〈빛속의 연인들〉 1:30 나눔 0700

TV 하이라이트

주말& 영화

美 개척시대, 무법자들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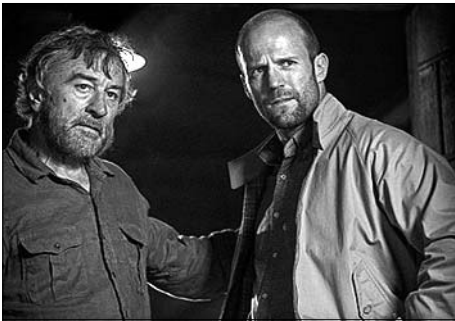
★ 고전영화극장 ‘옛날 옛적 서부에서’ <EBS 10일(금) 오후 10시45분> 한 시골 역에 세 명의 무법자가 들어닥친다. 이들은 약당인 ‘프랭크’를 만나러 오는 이름 모를 남자를 기다리는 중이다. 마침내 남자가 도착하고 그와 맞닥뜨리게 된 세 무법자는 모두 그의 총에 쓰러지고 만다. 한편, 프랭크는 부하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맥베인’이라는 남자와 아이들을 살해한 후, 마을의 무법자인 ‘사이언’의 짓인 것처럼 꾸민다. 뉴올리언스에서 매춘부 생활을 하던 ‘질’은 한



달 전에 맥베인과 결혼하고 남편을 만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오게 된다. 그녀는 역에 아무도 마중을 나오지 않은 것에 의아해하며 남편이 살고 있는 스위트워터로 찾아가는다.

SAS 정예요원 석연치 않은 죽음

★ OBS시네마 ‘킬러 엘리트’ <OBS 11일(토) 오후 10시10분> 석유 전쟁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SAS 요원을 처치해 달라는 의뢰를 하는 오만의 부총장. 실재를 모르는 본능적인 킬러 대니는 파드너이자 멘토인 헌터를 구하기 위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받아들인다. 특수부대를 상대로 자백을 받아내고 사고로 위장하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사랑하는 연인을 뒤로 한 채 타겟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위한 세밀하고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 병적으로 철저한, 고문도 안



통하는 독종의 영국 특수부대 SAS 전직 요원인 스파이크. 그는 세계최강의 영국 특수부대 SAS 전, 현직 요원들의 연이은 죽음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는데...



동생 태어난 뒤 세상은 검은빛

★ 시사교양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SBS 10일(금) 오후 5시30분> 동생이 생기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5살 석진이를 만나본다. 석진이는 동생과 함께하는 그림놀이 시간에 검은색 매직을 손에 쥐고 있다. 동생은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색칠공부를 하는 반면, 석진이의 노트에는 온통 검정색 뿐이다. 특히 석진이가 신경써서 색칠하는 부분은 바로 캐릭터들의 눈이다. 책을 봐도, 장난감을 봐도 다 까맣게 칠해져 있는 캐릭터들의 눈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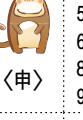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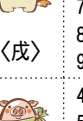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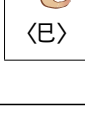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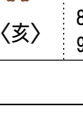
노스팩 취준생 보안 컨설턴트로

★ 시사교양 ‘청년취업프로젝트 내 일을 부탁해’ <K1TV 11일(토) 오후 5시10분> IT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옥종경씨. 고졸에 스펙도 없던 그가 취업을 위해 선택해야 했던 기술. 컴맹에서 IT보안 컨설턴트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노력의 과정들이 담긴 그의 ‘취업 다이어리’가 공개된다. 두 번째 꿈의 기업은 스마트폰 케이스 IFACE로 유명한 디자인 회사, 에이스그룹. 웹디자인을 희망하는 두 명의 취준생이 인턴체험을 하기위해 찾아왔다.

박준형, 추억의 개그맨 됐다

★ 시사교양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MBC 11일(토) 오전 8시55분> 2005년, 선후배 사이였던 박준형과 김지혜는 코미디언 부부가 되었다. 올해로 결혼 10년차. 9살 첫째 주니와 7살 둘째 헤이, 보물 같은 두 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요즘 그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다. 2013년, 케이블 코미디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그의 개그 활동 공백기가 생각보다 길어졌다. 첫째 딸 주니가 ‘아빠, 유명했었잖아. 유명한 게 아니라!’라며 가슴에 비수를 찔는데...

오늘의 운세 7월 10일(음 5월 25일)

(검석창·수원청학작명소) 심재현 원장 靑鶴道人 ☎010-5393-0358			
 [子]	36년생 오래전 헤어졌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칠 수 있다. 48년생 시작은 좋으나 끝이 영키니 잘 풀려라. 60년생 집안에 즐거움이 겹쳐졌다. 72년생 처음엔 놀라지만 결국 이익이 온다. 84년생 공적인 일과 인연이 결구한다.	 [午]	42년생 이사, 여행, 자리변동에 유리하겠다. 54년생 일에 혼돈이 올 수 있다. 66년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 78년생 마음이 급하여 실수를 할 수 있다. 90년생 힘든 일에서 결실을 맺었다.
 [丑]	37년생 군대, 병원, 경찰 등 권력기관과 유대를 기대한다. 49년생 경제적으로 좋은 일을 기대해볼만 한다. 61년생 월가가 차오르겠다. 73년생 학수고대하던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85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하는 재물이 더 많겠다.	 [未]	43년생 가족에 경사가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55년생 뜻하지 않은 행재수가 보인다. 67년생 막연한 두려움과 고독함이 강하게 생긴다. 79년생 규칙적이고 바르게 생활해야 한다. 91년생 일이 더디게 이루어져도 조바심을 내지 말자.
 [寅]	38년생 자존심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50년생 오우에 스트레스 풀릴 좋은 일이 생기겠다. 62년생 오랜만에 친구 만나 유쾌한 시간. 74년생 직업문제가 해결된다. 86년생 부부나 이성간에 애정운이 넘쳐났다.	 [申]	44년생 힘든 만큼 얻는 것도 있다. 56년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딪치지 오우에만 움직일 것. 68년생 동자를 만날 수 있다. 80년생 산책이라도 다녀올 것. 92년생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것.
 [巳]	39년생 행재수가 있으니 기대를 해바라. 51년생 대의명분을 위해 모임을 갖게 될 수 있다. 63년생 귀미와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75년생 불리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개선에 힘쓸 것. 87년생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계획을 세우기 좋은 때다.	 [酉]	45년생 바빠도 절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라. 57년생 기다리던 소식 접하고 주변상황도 좋아지겠다. 69년생 일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성과를 보기는 힘들다. 81년생 재물이 동쪽에 있지만 반은 얻고 반은 잃겠다. 93년생 과로하지 말고 건강에 신경 쓸 것.
 [辰]	40년생 기회가 왔지만 여건이 안 따라준다. 52년생 친구로 인해 부담되는 일이 생긴다. 64년생 본인의 의견대로 밀고 나가지지 말 것. 76년생 생각만 앞서니 답답하다. 88년생 전화를 뿌리면 자신이 넘어간다.	 [戌]	46년생 친구들과 의기투합 되어 좋다. 58년생 이통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오우에만 움직일 것. 70년생 여행을 한다면 곤란한 일 겪을 수 있겠다. 82년생 뜻하지 않은 행재수가 보인다. 94년생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니 재물이 들어오겠다.
 [巳]	41년생 물은 하나인데 할 일은 태산이다. 53년생 힘든 일이 있다면 조연을 구할 것. 65년생 빌려놓은 일들을 속수하라. 77년생 화가 가고 복이 오니 일신이 편안 하겠다. 89년생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라.	 [亥]	47년생 관심 있던 일에 과감히 도전해 볼 것. 59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행복하다. 71년생 새로운 만남은 항상 주의를 할 것. 83년생 컨디션이 좋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된다. 95년생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날.



김종양 경기경찰청장, 부천오정궐 경찰관 등에 표창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은 9일 부천오정궐경찰서를 방문해 ‘서민의 사람, 도민의 자랑이 되는 경찰상 확립을 위한 소통·화합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협력단체장들에게 협력 치안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치안 인프라 확보, 4대 사회와 적결 등 주요 업무 보고, 주민들과 현장 경찰관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 청장은 이날 치안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공이 많은 민간인 3명과 경찰관 3명에게 각각 감사장과 표창을 수여하고 업무 현황을 청취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도립중앙도서관, 공동모금회에 외국 동전 등 모아 전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 오전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서 서랍 속 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서랍 속 나눔캠페인은 은행에서 환전이 불가능한 외국 동전과 오랫동안 서랍 속에 방치된 소액 동전을 모아 국내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다.

이날 도립중앙도서관 직원들이 한 달간 모은 외국 동전 및 소액 동전을 경기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성금에는 평택, 광주, 여주, 포천, 김포도서관 직원들이 모은 성금도 포함됐다.

강나눔 기자 herod43k@khihoilbo.co.kr



가평 지역 교·원장 등 21명, 하반기 추진 업무 협의

가평교육지원청은 9일 물희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평가와 하반기 업무 안내를 위한 학교(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가평초 서명숙 교장은 “교육지원청의 아낌없는 현장 지원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 모두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문화 속에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가평교육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hihoilbo.co.kr



안산소방서, 유치원 교사 등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안산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119수호천사’는 지난 8일 안산시 고잔동 행복한 유치원에서 한국119소년단원,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 마네킨 등 교육 장비를 활용한 체험 위주로 진행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고양경찰서, 지역 농촌 농작물 절도 예방 홍보 활동

최근 전국적으로 농작물 절도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고양경찰서는 9일 관내 현천동 등 전 농촌 지역에 특별 순찰구역을 지정하고 ‘농심을 멎게 하는 농작물 절도 엄벌’이란 내용의 플래카드와 경고 입간판을 확대 설치하는 등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에 나섰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해외 취업문 뚝뚝... 청년들의 꿈 실현 뒷바라지

경경련, 해외진출지원사업 참가 연수단 45명 발대식 열어
캐나다·미국 등 파견... 뷰티~영업 등 다양한 분야 연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9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경기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연수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동화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민경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경기청년 해외진출단과 학부모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언어부터 문화까지 다른 해외에서 현지 인력풀을 뛰어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성실함과 도전 정신을 잊고 노력해

그것을 바탕으로 삶의 초석을 세워 달라”고 조언했다.

민경원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쏟은 노력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여러분의 의지와 뜻 그리고 꿈을 펼쳐 대한민국 청년의 자긍심을 선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화 위원장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열정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도전하라”며 “인내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며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도내 청년·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외 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이수



하도록 한 뒤 해당 국가의 기업체나 기관에 취업시키는 경기도 일자리 사업이다. 경기청년 해외취업 연수단은 미국 15명, 캐나다 23명, 중국 7

명 등 총 45명으로 구성된다. 나라별 취업분야도 ▶캐나다: 서비스, 뷰티, 영업, 엔지니어링 ▶미국: 패션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사무직, IT, 엔지

니어링 ▶중국: 무역 물류,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강나눔 기자 herod43k@khihoilbo.co.kr

지식 나눔 실천 청소년 앞날 밝혔다

하남시, 군 장병 등 5명
학습지원 유공자 표창

하남시는 9일 청소년 학습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3183부대 장병 3명과 일반봉사자 2명이 하남시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또 3183부대에는 부대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이교범 시장이 집무실에서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청소년 나눔 배움터 교실’을 개별 운영해 관내 청소년의 학습을 도와왔다. 또 진학 진로, 학교폭력 등 청소년 상담 활동에도 앞장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교범 시장은 표창을 수여하며 “교육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하남시 교육 발전에 힘써준 점 감사드리

다”며 “하남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khihoilbo.co.kr

우리쌀로 만든 가공식품 노래로 우수성 홍보

경기도농기원 소비촉진대회
캠페인송 제작해 배포 예정

경기도농업기술원은 9일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 대극장에서 한국생활 개선경기도연합회원, 관계 공무원 등 900명이 모인 가운데 ‘농촌여성 굿모닝 경기미 소비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촌여성들이 앞장서 도민이 함께 우리 쌀 사랑에 참여하도록 쌀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수영 행정1부지사 내빈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경기미 흡소프’,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송 부르기 퍼포먼스 등과 함께 떡류, 음료류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100여 점이 전시됐다.



‘맛있는 경기미 흡소프’는 농촌여성이 장입한 쌀 가공식품 4개 제품을 전문 쇼호스트와 함께 흡소프 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며,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송은 기존의 생활개선회가

를 개사한 것으로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도 발표했다. 이날 사용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송과 플래시몹은 31개 시·군에 배포해 전파할 계획이다.

박훈희 기자 nhp@khihoilbo.co.kr

여주 백신지구 농경지가뭍해소 최선

전승주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 발걸음

전승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9일 여주·이천지사를 방문해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현장과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전승주 본부장은 총사업비 1천29억 원(양수장 2곳, 용수로 73km)이 투입된 여주시 흥천면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어느 해보다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슬기롭게 대처한지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남한강 하천용수가 인근 지역 1천704ha의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급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배수펌프장 점검에서는 취약시설을 철저하게 정비·점검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재해대비 태세를 당부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ju@khihoilbo.co.kr



경기과기원, 평택지역 중기에 기술 지도·자문

9일 오후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택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자문을 위한 ‘SME 솔루션 토크(Solution Talk)’ 행사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전문가들이 평택 기업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강나눔 기자 herod43k@khihoilbo.co.kr



의왕시, 학부모 예절명예교사 교육 마무리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이 지난 4월부터 총 12주간 진행한 학부모 예절명예교사 과정을 마치고 지난 7일 수료식을 가졌다.

오전초, 왕곡초, 의왕덕성초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부모 예절명예교사 기본과정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부모가 먼저 예를 실천하고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매년 3월 관내 학교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 받아 총 12주 과정으로 학부모 예절명예교사 기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hihoilbo.co.kr



광주 퇴촌면 새마을지도자협 마을 정비 실시

광주시 퇴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퇴촌면 영동2리 구룡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마을정비를 실시했다.

퇴촌면 직원을 비롯해 협의회 회원,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은 지난 7일 마을 입구부터 안까지 풀베기, 넝쿨 및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등 구슬땀을 흘리며 마을 정비에 힘썼다.

이미순 부녀회장은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퇴촌면의 주민들이 영동리 구룡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다 함께 어울리며 행복한 마을을 만든데 초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창교 기자 pcg@khihoilbo.co.kr

역사 속 위인들에게 배운 청렴 이야기

본보·토지주택公 주최 ‘제1회 청렴인천 글쓰기대회’ 시상
청백리 정신 탐구하며 정직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

“청렴한 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와 가까이 있는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며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호일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청렴인천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원초등학교 나타연 양의 말이다.

나 양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역사 속의 위인들을 탐구하면서 ‘청렴’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리지만 올바른 생활을 통해 청렴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알림이’ 역할을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9일 오후 LH 인천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

에서 ‘제1회 청렴인천 글쓰기 대회’가 추구하는 바를 나 양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선 나 양을 비롯해 부원중학교 김강 군과 조승현(홍스쿨링)군 등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49명의 초·중·고교생들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시상식엔 권석원 LH 인천지역본부장과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박위광 푸르미 가족봉사단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렴인천 글쓰기 대회’는 단순한 글짓기 대회가 아니라 아이들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대회 참여 학생들이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자신들의 글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역사 속의 청렴한 위인에 대한 탐구와 글쓰기를 통해 정직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인성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됐다. 대회 기간 참가자들은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위인들의 청렴의식을 새롭게 접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한 달

을 보냈다”며 “이번 행사가 꾸준히 이어져 지역 내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할 대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권석원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첫 행사에 많은 학생이 참여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LH 인천본부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청렴인천 글쓰기 대회’를 계기로 지역 사회에 활발한 청렴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주요 수상작은 LH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아이들의 눈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일깨우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인천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본사소문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신입 인사차

〈경기 본사〉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한근석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 안전지원국장: 신입 인사차

김윤식 대표, 문제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김윤식(사진)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8일 위촉됐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대표이사는 앞으로 2년 간 전국 시·도
문화재단을 대표해 지역문화정책 및 사
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경일 기자 kik@khihoilbo.co.kr

권오규 교수, 인하대 신입 교학 부총장에 임명



인하대학교는 권오규(63)전기공학과
교수를 신입 교학부총장에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신입 부총장은 서울대 전기공학
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전기공학(석
사)·제어계측(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2년 인하대 공과대학에 임용됐다.

1996년 인하대 공대 부학장을 거쳐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을 두루 역임해
교학부총장으로서 적
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급여1%씩 소외층 보금자리 보수 롯데백화점 리블리하우스문 열어

‘리블리 하우스’가 지난 8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미추홀사회복지관에 인천 최초로 문을 열었다.

리블리 하우스는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1월 창립 35주년을 맞아 시작한 것으로, 노후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또는 조손 가정의 집을 매월 선정해 보수해 주는 사업이다. 리블리 하우스 프로젝트는 이번 미추홀사회복지관이 13번째로 이용우 롯데백화점 인천점장을 비롯한 잠사량봉사동호회 회원들이 마무리 작업과 헌반식에 참가했다. 리블리 하우스를 위한 재원은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1% 급여 나눔 캠페인’을 통해 마련됐다.

인재균 기자 aik@khihoilbo.co.kr



인천 공동모금회,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 전달식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9일 인천지역 사회복지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 전달식 및 수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 사업 경과보고 및 사업 수행교육이 진행됐다.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중부해경 워크숍 열고 불법조업 단속 등 논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9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및 태풍 내습 시 조치사항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서해 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와 하반기 대책 분석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안전관리 ▶태풍 내습 대비 준비상태 점검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의료·예술로 라오스에 헌신의 다리를 놓다

포스코건설, 인하대병원 등 2곳과 사회공헌활동

포스코건설은 인하대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1일 동안 라오스 비엔티안과 혼흥군에서 ‘글로벌 브릿지(Global Bridge)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5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해외 공공의료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후 ‘글로벌 브릿지’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는 혼흥군(Phone Hong District) 학교에서 라오스 청소년들과 함께 미술, 사진, 과학, 보건, 음악, K-POP 댄스,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학습 체험을 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올해로 5년째 해외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인하대병원 의료진은 혼흥군 마을 3곳에서 주민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소아과, 정형외과, 안과 등 진료를 실시했다.



포스코건설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9일(한국 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극장에서 라오스 국립예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문화교류 행사인 ‘글로벌 브릿지 라오스타 페스티벌(Global Bridge Lao Star Festival)’을 연다.

인천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인천환경공단 대한민국 사회공헌브랜드 대상 수상

인천환경공단이 9일 ‘대한민국 사회공헌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생활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한 지역난방에너지 공급과 음식물 찌꺼기 가축 사료화 공급, 태양광발전사업 등의 신재생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몽골 숲 조성 등의 국제 사회공헌 사업과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 사회공헌 브랜드를 높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훈 기자 ijh@khihoilbo.co.kr

살수차와 식사로 작은희망 전달

경찰 서울기동대·의용소방대 강화 농가돕기 동참

경찰이 집회시위에 쓰이는 물포 차량 12대를 동원해 강화군의 가뭄 해소에 동참하는 등 특별지원 활동을 벌여 농민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군 피해 농가(내가, 불은, 양사면)를 위해 서울, 경남, 전남 등 경찰청에서 지원된 물 보급 차량 9대, 살수차 3대 등 총 12대를 지원받아 1에 1일 평균 210t(22일간 약 3천400t)의 농업용수를 공급해 바짝 타들어 가던 논바닥에 생기를 돌게 하고 있다.

농수 지원을 받게 된 내가면 구하리 이장 김모 씨는 “범초 예방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해 이런 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는 경찰의 모습에 감동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현장 지원에 나선 서울기동대 최모 경위는 “가뭄으로 메마른 논밭을 보며 한숨짓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다”며 “다소나마 농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강화군의 의용소방대연합회도 강화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소방서 급수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며 한 번이라도 더 물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o2@khihoilbo.co.kr

으뜸 환경정책 개도국에 전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 스리랑카 위생매립사업 파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스리랑카 최초의 위생매립장인 돔페(Dompe) 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한 향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진출수처리 및 위생매립 전문가를 파견한다.

9일 공사에 따르면 1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2명의 전문가가 파견, 매립장 운영에 관련된 위생매립장 추가지원 검토와 폐기물 매립 초기 현장 지도 및 시설물 운영 하자 사항 점검, 침출수 처리장 기술지원 등 최적의 운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돔페 매립지는 공사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금까지 기술자문 및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스리랑카 최초의 위생매립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국으로서 환경 분야에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라며 “스리랑카에 침출수 문제 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그 피해를 줄일 희망의 빛을 안겨 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lbo.co.kr



위동항유한공사-중산동성 여유국 관광 홍보 협력

위동항유한공사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여유국과 상호 협력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양측이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태산의 코리안루트 등 한국인이 선호하는 산둥성 관광지에 대한 관광 설명회 개최 및 유튜브를 통한 산둥성 관광지 동영상 홍보 등 7대 홍보안 등을 담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인천신석초 교직원 방문 맞춤형 직무연수 실시

인천신석초등학교는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교원 역량 강화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혁신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학교에 따르면 이번 직무연수는 ‘함께 실천하는 수업 공동체 운영을 위한 배움 중심 수업 연수’를 주제로 교원 역량 신장과 수업 개선에 적합한 학습 유형별 학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수업 연구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재성 기자 jskim@khihoilbo.co.kr

“2017년 서운산단 시대 열어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로 도약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1년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구민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늘 뛰어 다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는 계양구를 서부 수도권 최고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박형우 구청장은 계양정명 8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박 청장은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인터뷰에서 서운산단사업 조성 사업의 진행결과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다.

“민선 5기 때 서운산단 착공을 하지 못한 점이 두고두고 아쉬웠죠. 민선 6기 때는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돼

임기 안에 조성 사업 마무리 올해 ‘계양정명 800년’ 맞아 산성 복원·박물관 건립 박차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운산단은 예정대로 201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가 서운산단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경제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풍부한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 만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

취임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및 과제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계양산성에서 6차례 발굴조사 결과 약 4천여 점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수많은 문화재가 현재 선문대학교 수장고와 겨례문화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 안

타깝죠. 계양산성 복원과 계양산성 박물관을 건립해 계양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계양구 숙원사업도 말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양정명 800년 사업에 박차를 가해 계양구가 역사적인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도약을 이룬 구청장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미 계양정명 800년을 기념하는 800그루의 소나무 심기 행사, 전국 단위의 계양산국악제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10월 구민의 날에 KBS 열린음악회 개최, 사진전 및 공모전 개최 등 남아있는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특유의 자신감을 보이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극장 건립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작전야와공연장 위치에 공연석 254석 규모로 2016년에 소극장이 완공되면 구민들께서 연극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을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화제를 돌려 구민과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를 물어봤다.

“법과 원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구민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계양구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와 국정평가에서 3년 연속, 인천시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직원이 계속 계양구에 남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화합하는 분위기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해를 맞아 구민들에게 인상 깊었던 책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에 박 청장은 “최근 ‘여덟 단어’란 책을 읽고 있는데 내용이 좋다”며 “살아갈 때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할 덕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민생사업 국·시비 확보 여야 뚝뚝 뭉쳐 관철시키겠다



곽성구 계양구의회 의장

“제7대 계양구 의회 총 11명의 의원 모두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이나 지역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합심해 노력해야만 구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선 의원인 곽성구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밝힌 각오다.

“지난 2014년 7월 9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집행부를 상대로 한 각종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추경안 처리, 각종 조례 등 나름 많은 일을 해왔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부족한 행정에 대해서는 대안도 제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자재 세입 증대방안 등 강구 주민센터 신설 등 요구 반영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 노력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일 처리를 날카롭게 비판도 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회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목소리를 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업은 바로 예산 확보입니다. 계양구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20%가 넘지 않는 상황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각종 주민 민생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시비 보조금이나 국비, 자체 세입 증대방안

을 강구하는 데에 소속 정당을 고집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계양구의회 의원들의 공무 해외여행을 놓고 벌어진 신경전을 의식한 듯 곽성구 의장은 의원 상호 간의 화합과 소통,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계양구 의회는 총 11명 의원 중 3선 2명, 재선 3명, 초선 6명으로 초선의 비율이 높습니다. 성별로도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여성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제17회 본회의부터 제18회 정례회까지 8회에 걸쳐 한목소리로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구가 제안한 사업들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판단하고 구민의 혈세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한 조례 제정, 구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집행부에 통보해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제 몫을 다했습니다.”

‘민의를 대변자’가 돼야 한다는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

다. 이에 열린 의정·구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의정을 약속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이 곧 계양구의 정책이 돼야 합니다. 계양1, 2동 주민센터를 나뉘 계양3동 주민센터를 신설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노후한 효성1동, 작전2동 주민센터를 신축해 금년 말 준공하는 것도 구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개발 설명회 2회 실시, 계양정명 800주년을 맞아 계양박물관 건립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세부적으로 점검해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에게 보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그는 구의회를 대표해 의원들의 각오를 전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꼭 챙기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0년 연속 1위

인천국제공항, 최고점을 넘어 최초가 되다!

세계 최초 공항서비스평가 10년 연속 1위!

전세계 1800개 공항과 경쟁하여 10년 연속 공항 서비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유일무이한 기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 그리고 40여 공항가족의 열정이 모여
세계 공항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국민과 고객을 위한 초심을 가다듬고, 글로벌 허브공항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인의 인천공항, 신뢰받는 국민기업

- ★Global Traveler 선정 세계 최초 명예의 전당 등재
- ★TTG 트래블러워즈 선정 2년 연속 최고 공항
- ★SKYTRAX 선정 세계 최고 국제 환승공항
- ★Business Traveller 선정 5년 연속 세계 최고 면세점

남과 다른 몸... 고민하지 말고 치료 나서자

명·의·건·강·체·크

선천적 기형·오목·새가슴 수술 통해 마음 상처 치료

김보형(17)군은 학교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다. 친구들과는 달리 오목하게 들어간 가슴이 신경 쓰여 남들 앞에서는 절대 옷을 벗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웬지 가슴 부분이 꺼져있는 것 같아 자세 역시 항상 구부정하다.

오목가슴과 새가슴은 가장 대표적인 가슴 부위의 기형이다.

오목가슴은 가슴 앞부분이 몸 안쪽으로 함몰된 상태를 말하고, 이와 반대로 새가슴은 몸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상태다.

이러한 흉벽 기형은 인구 300~400명당 1명꼴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학생은 물론 부모들 역시 해당 질환에 대해 누구와 어떤 식으로 상담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새가슴, 주로 사춘기 전후 발생

홀로 숨겨오다 우울증 앓기도

보조기·새로운 수술법 개발로

흉터 걱정 줄이고 교정 가능해져

특히 오목가슴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주로 발생해 부모들이 자녀들의 상태를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지만, 새가슴의 경우는 주로 사춘기를 전후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병원에서 방문하는 환자의 보호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오목가슴이나 새가슴과 관련해서 내부장기(심장·폐 등)에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오목가슴이나 새가슴 환자 중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심장이나 폐 기능은 정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할 때 쉽게 피로해지거나, 숨이 찰 수 있다고 한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흉부외과

강두영 교수는 “흉벽 기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적인 기형과 관련된 환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상에서 “새가슴이나 오목가슴 환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가 자신의 신체 기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잘 표현을 못 하는 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해당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기형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우울증을 앓는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 알려졌다.

따라서 오목가슴이나 새가슴의 치료 여부는 내부 장기의 이상 소견도 중요하지만, 기형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치료 욕구가 가장 중요한 결정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들이 기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

오목가슴은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보통 초등학교 시기나 그 이전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과거 오목가슴의 치료법은 앞가슴을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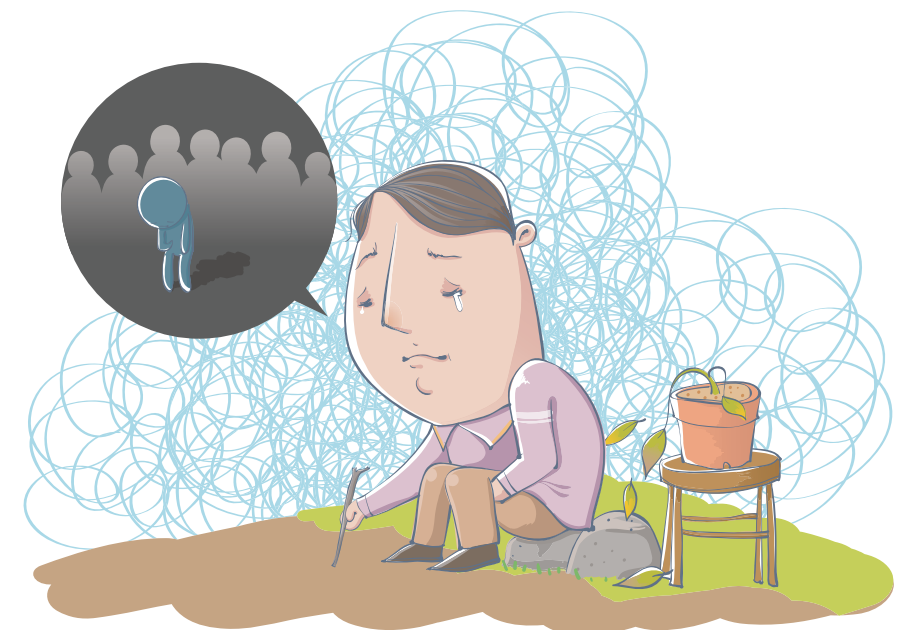
절개하고 갈비 연골(늑연골)을 잘라내 교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기간 앞가슴이 눌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커다란 흉터가 남아환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최근 양측 옆구리에 1.5cm가량의 절개를 통해 갈비 연골을 절제하지 않고, 가슴 속에 금속 막대를 삽입해 교정하는 너스술식이 소개되면서 많은 환자가 이전보다 비교적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수술법은 회복 기간이 짧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 환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오목가슴이 주로 수술을 통해 교정하는 반면 새가슴의 경우는 가슴을 조여 주는 보조기를 사용한 비수술적 치료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가슴보조기 치료는 약 6개월간의 치료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목가슴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움말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흉부외과 강두영 교수〉



오목가슴 수술 전(왼쪽)과 후.

소·개·합·니·다

대장암 명의 이윤석 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외과)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초기 대장암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하죠. 보통 50세 이상들에게 대장정기검진이 권장되지만 대장암이 발생한

한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40대 또는 그 이전부터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 분야의 국내 최고 명의로 꼽히는 이윤석(45)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외과 교수가 소개하는 대장암 조기 발견법이다.

그의 화려한 이력에는 ‘국내 최초’ 또는 ‘경인지역 최초’라는 수식어가 유난히 많다.

복강경하 폐쇄공 탈장 교정술(2002년 11월), 단일 절개 복강경 탈장 교정술(2008년 11월) 등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무려 3개나 달고 있다.

사실 그는 배에 구멍 몇 개만 뚫고 수술 기구를 넣어 진행되는 복강경 수술이나

안전한 복강경 수술로 환자 회복 빨라져

로봇수술에서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복강경 수술은 주위 장기나 조직에 거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정말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과거 개복수술로 진행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수술법이 천지개벽할 만큼 많이 발전했어요.”

그는 거의 모든 대장암을 복강경 수술을 통해 제거한다. 세계적으로 40~50%밖에 안 되는 비율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끝반 깊숙이 항문 가까이 자리 잡은 곳으로 수술하는 의사의 손이 들어가기 힘들고, 수술 부위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대장암 환자는 로봇수술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어 이를 배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의 실력이 입소문이 나면서 2013년 아시아복강경학회에서 로봇수술을, 올해 1월 태국 핫아이(hatyai)병원에서 복강경 수술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어렵게 익힌 수술법을 외국의 의료진에게 전수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수술 시연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점도 많아요.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습

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또 배우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많아서 의학발전을 위해 좋은 일 아닌가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공유로 생각해요.”

그에게 재미난 일화도 있다. 바로 ‘울릉도 군의관 1호’가 그것이다.

1996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1년 남들이 꺼리는 울릉도 군의관에 지원해서 갔다.

“울릉도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경험과 고민을 했죠. 제가 알기론 인천지역 섬들의 의료사각지대가 지금은 굉장히 개선됐지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기가 뜰 수 없는 약천후인 경우 섬 근무 의사들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윤석 교수는 대장암 예방법을 꼭 소개해주기를 부탁했다.

“대장암에 잘 걸리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전인자 등을 가진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쁜 식습관을 가진 경우죠. 과식을 피하고 술과 육류의 과도한 섭취도 자제하면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길 권합니다.”

병·원·이·모·저·모

분당차병원 세계 최고화질 내시경 국내 첫 도입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지훈상)은 Full HD 200만 화소 현존하는 내시경 중 최고의 화질을 보유한 독일 칼스툴츠 내시경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칼스툴츠 내시경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기기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5mm 이하의 미세한 병변까지 찾아내 조기암을 진단하는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선명한 8배 줌(Zoom) 기능과 5가지 색상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백광검사 방식에서 발견하지 못한 병변을 발견하는 데 용이하며, 내시경의 굴절각이 10~20도 더 넓어져 접근성을 높였다.

위내시경의 경우에는 내시경 관의 직경이 9.3mm로 얇게 제작돼 환자들이 내시경을 받을 때의 불편함을 줄였다.

조주영 분당차병원 내시경센터장은 “칼스툴츠 내시경의 향상된 기능은 소화기암의 조기 진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최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도입으로 최적의 진료 환경을 갖추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 내시경 시술 생중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제24회 소화기 내시경 국제 심포지엄’에서 강연 및 내시경 시술 라이브 시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9일 밝혔다.

초청인사로 문 교수가 참석한 소화기 내시경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 최고의 내시경 심포지엄 중 하나다. 중남미에서 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심포지엄으로 손꼽힌다. 심포지엄에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치료 내시경 권위자 20여 명이 초청돼 강연과 내시경 시술을 선보였으며, 아시아에서는 문 교수를 포함해 2명의 의사만이 초청받았다.

문 교수는 담도 내시경 검사의 최신 지견을 비롯해 ▶난치성 담관 결석의 치료 ▶담관암과 췌장암의 조기진단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한 담도, 췌장 질환의 치료 등을 주제로 모두 5개의 강연을 펼쳤다.

또 남미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관암, 췌장암, 담도결석에 대한 담도 내시경 검사 및 내시경 치료술 ▶담도협착의 내시경적 배액술 등에 대한 내시경 시술 라이브 시연을 성공적으로 펼쳐 참석자들에게서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심포지엄에는 중남미 및 세계 각지의 소화기병·내시경 전문의 1천500여 명이 참석해 진단 및 치료 내시경의 최신 정보를 교환했으며, 심포지엄의 전 과정은 남미 거의 모든 나라에 중계방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기호일보 창간 2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들의 권익과 사회정의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기호일보의 창간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엘 지



성남시립의료원 공사로 걷던 길이 사라졌다

부지 측량 때 보행로 일부 사유지 편입... 안전펜스에 폭 줄어
불법 주정차 차량 가로막아 이동 위험... 수정구 등 대책 인식

성남시가 옛 시청사 부지에 시립의료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보행자 도로(인도)를 축소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시립의료원 부지 측량 시 보도의 일부 구간이 사유지에 편입돼 보도의 길이와 폭이 축소되면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건립 중인 성남시립의료원은 총면적 8만2천774㎡ 규모로 2011년 옛 시청사 건물 발파 공사를 시작으로 2013년 11월 착공했다.

시는 당시 측량을 통해 보도에 속한 수정로 171번길 100여m의 폭 일부(90cm)가 사유지임을 확인하고 설계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말에도 이 길과 연결되는 시민로 205번길 보도(10m 내외)와 10여 대의 노상 주차공간을 공사 구역

에 포함시키고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평소 시민들이 이용하던 보도가 사유지와 공사구역에 포함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이모(55)씨는 “시립의료원 공사로 인도의 길이와 폭이 줄자 보행 중 유모차 등이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수차례 봤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사고 위험도 크다”며 “수십 년간 이용해 온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았다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안전펜스가 설치된 보도는 성인 한사람이 지나기도 좁을 정도다. 또 보도가 끊긴 지점은 급경사이다 경계석도 높아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여기에 노상 주차장까지 공사구역으로 편입되면

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보도를 가로막고 있어 도로로 내려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립의료원 건립추진단과 관할 구청인 수정구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립의료원 건립추진단 측은 “해당 보도를 연장하거나 경계석을 낮추는 방법 등 3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인도를 확보하는 것보다 우선 불법 주정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책임을 관할 구청에 떠넘겼다. 구청 관계자 또한 “공사 진행 중에 경계석을 낮추는 것도 임시방편이고, 보도 구간 추가 확보도 어려울 것 같아 우선 횡단보도에 블라드크자랑진입 방지 장치)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보행권 확보와는 다소 동떨어진 답을 내놨다.

성남=이규식 기자 kls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khihoilbo.co.kr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사장에 설치된 안전펜스로 인해 축소된 보도(인도)를 한 시민이 어렵게 지나고 있다.

다.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문제를 유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시험 여부는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외하고 치를지 학생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문제를 일으킨 A교사는 “국내 교직 경력이 짧고(6개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시험문제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광주지역 고교 기말고사 영어문제 기간제 교사가 일부 학생들에 유출

학교 측 재시험 예정했다 무산
해당 교사 사실 인정하고 사과

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광주시 K여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치러진 고교 1학년 영어시험 문제를 이 학교 기간제 교사

인 A(25·여)씨가 일부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유출해 알려졌다. 이들은 광주하남교육청과 학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학교 측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문제가 된 영어 과목만 재시험을 치기로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한 내신 등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재시험은 끝내 치러지지 못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문제 유출의

혹을 사고 있는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에 따르면 A교사는 영어시험 31개 문항 중 19개 문항을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 학생들 일부에게 알려줬다.

학부모 김모(44)씨는 “사립학교이다 보니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고, 자기만 성적을 올리려는 과열 경쟁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교통사고 이의신청 2년 새 49% 증가

재조사로 피해구명 효과 있어도
일단 내고 보자 ‘민원신청’ 늘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재조사 등 이의를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은 민원인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건수가 최근 2년 새 142건(49%) 증가했다. 2012년 292건에서 2013년 383건, 지난해 434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 상반기 현재 도내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 신청 건수만도 148건에 달했다.

그러나 경찰의 재조사로 결과가 뒤바뀐 사례는 2012년 13건(4.5%), 2013년 15건

(3.8%), 지난해 15건(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찰의 재조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사례로는 지난달 23일 안양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보행자 A씨가 버스를 타려다가 넘어진 사고가 있었다. 당시 관할 경찰서는 버스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했지만 경기경찰청 재조사 결과 A씨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쫓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사실

이 확인돼 사고는 A씨 과실로 정정됐다.

지난 3월에는 의왕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한 사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경기경찰청은 재조사를 통해 차선 변경 후 뒤차가 앞차의 뒷부분을 추돌한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일선 경찰서의 사고 처리 내용에 불만을 품고 경기경찰청에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아 경찰 조사의 신뢰성은 물론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를 야기한 민원인들이 일선 경찰서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자 지난해부터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이의 건수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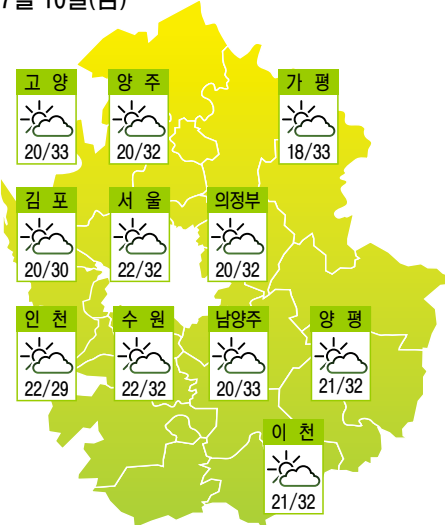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건수 자체가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덩달아 증가한 면이 있다”며 “일부 민원인의 경우 민사 보상 책임을 적게하려고 일단 내고 보자는 식으로 이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7월 10일(금)

해돋이 05:19
해질녘 19:55

달돋이 00:42
달질 14:10



아이스크림 그리는 한낮

가끔 구름 많겠음. 아침 최저기온 18~22도, 낮 최고기온 29~33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풍향	풍속	파고
서해	동~남동	5~9	0.5~1.0
남해	북동~동	8~12	1.0~2.5
동해	북동~동	5~8	0.5~1.5
인천	미물	10~56 23:54	04:51 17:31

강수확률(%)

지 역	오전	오후
인 천	10	20
수 원	10	20
동두천	10	20
이 천	10	20
양 평	10	20
강 화	10	20

제공 Kweather www.630.co.kr

토지보상금 받을 게 있는데...
친형까지 속여 43억 원대 사기

수천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이었다며 지인과 소상공인을 속여 43억여 원을 가로챈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모(52)씨와 또 다른 김모(38·여)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10년 3월~2015년 4월 김 씨의 형과 조·중고 동창, 소상공인 등 17명에게서 총 43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창생이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나라로부터 받을 토지보상금 3천억 원이 있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내주면 많은 이자와 사업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실제 이들은 땅은커녕 토지수용 보상금도 한 톨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김 씨는 친형(57)도 속여 투자금 4억을 받고 지인들에게 “우리 형도 투자했다”며 피해자들을 만게 했다. 공범인 또 다른 김 씨는 법원 판결문과 예약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피해 자금 회수를 위해 이들의 재산을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안전, 정직, 신선한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농특산물

G마크

확실한

생활의 차이!

이제부터 특별한 품격을 드십시오!

G마크의 의미
영문자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G와 연결된 새싹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경기농업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G마크를 만나실 수 있는 곳 - 경기사이버장터 080-031-6688 | www.KGFarm.or.kr

찾는이 없으니 말는이도 없고 쓰임새 못바꿔

인천 연안부두 월디4D영상관 애물단지 전략

178억 들여 해양광장 조성
수요 없어 수개월째 문 닫아
국비지원... 區 활용도 못해

인천시 중구가 연안부두 해양
광장에 건립한 월디4D 영상관이
애물단지로 전략했다.
수개월째 신규 사업자 모집에
실패하며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
지만,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사항
때문에 구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9월 구에 따르면 연안부두를
찾는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 인
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2월 총사업비 178억 원
을 투입해 해양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해양광장에 200면 규모
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한편
신축 전망대 3층에 70석 규모의
월디4D 입체영상관을 유치했다.
하지만 당초 목표와 달리 입체
영상관을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못 미치며 결국 지난해 12월 1일
을 마지막으로 상영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굳게 문이 닫힌 상태
다.
구는 공모를 통해 연간 1천
200만 원의 임대조건에 입체영
상관 운영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
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인천 중구 연안부두 해양공원 전망대에 들어선 월디4D 입체영상관 출입구가 굳게 잠겨있다. 배민성 기자 isb@kihoilbo.co.kr

월 100만 원 임대료에 상영물
관련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안
할 때 성인기준 4천 원(어린이 3
천 원)의 관람료만으로는 사업성
이 떨어진다고 계산한 민간사업
자가 선통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입체영상관을 통해 상
영된 영상물이 자동차 경주나 스
키 등 영화라기보다 사실상 가상
현실 체험에 가깝게 운영되다 보
니 관객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
도 한몫하고 있다.
그렇다고 입체영상관 사업을
포기하고 타 용도로 해당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어려운 실정이다.
입체영상관 유치 당시 중앙 정

부로부터 30여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터라 구 입맛에 따라 용도
를 변경할 수 없는 처지다.
결국 아심 차게 시작한 입체영
상관 운영이 파행을 겪으며 구가
중앙 예산 파내기에 급급한 나머
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에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만큼
신규 사업자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비 사업이
라도 수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
승인을 얻어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성 기자 isb@kihoilbo.co.kr

인천경찰, 동네조폭과 전쟁... 3개월간 185명 검거

인천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지역
주민들에게 상습 피해를 주는 일명
‘동네 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
여 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구속된 A(42)씨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남구에 거주하
는 노인 2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 이유 없이 같
은 동네에 사는 노인들에게 심한 욕
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
로 드러났다.
노인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보복
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

은 설명했다.
서구 석남동에서는 지난 4~5월
주택가 일대를 때 지어 다니며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민을
괴롭힌 노숙자 등 일당 7명이 검거
돼 B(48)씨 등 2명이 구속되고 5명
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이나 편의점에 들어

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소
입구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주변에
서 대소변을 보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생활 주변
의 치안과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위협
하는 동네 조폭을 앞으로도 계속 단
속할 것”이라며 “보복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 활동도 병행하는 만큼 피
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헤어진 동거남에 앙심...가스누출 살해시도 女 영장신청

인천부평경찰서는 헤어진 남성
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
(살인미수)로 A(52·여)에게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과거 내연남 B씨가 거주하는 부평
구 산곡동 소재의 주택에 몰래 침입
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후 가스
누출로 화재를 일으켜 B씨와 동거
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B씨가 거
주하는 주택 현관 유리창을 부순 후
침입해 생활용품을 훔치거나, B씨
소유 차량의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총 252만 원 상당의 금품 피해를
입힌 혐의(절도 및 재물손괴)도 받
고 있다.
서인석 기자 sis119@kihoilbo.co.kr

음주운전 사고로 아내 실명... 50대 환경미화원 벌금형

인천의 한 섬에서 음주운전을 하
다가 교통사고로 부인을 실명시킨
50대 환경미화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현덕 판
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
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께

옹진군의 한 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
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15
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졸음운전을 했고, 중
양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가드레
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아내가 실명하고
머리뼈 등을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연기도 안하는데 소독한거 맞나

지자체 방역 연막→ 효과·안전성 높은 연무소독 변화 추세
시민들 ‘효과 못민께다’ 민원에 인천지역 대다수 도입 눈치

전국 방역 체계가 ‘연막소독’에
서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바
뀌는 추세지만 인천 일부 지역은 지
연되고 있다.
연수구보건소는 소독약을 물과
혼합·압축해 사용하는 연무소독을
새롭게 도입해 관할 전역에 친환경
방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연막소독은 소독약을 경유
와 혼합하기 때문에 기름으로 인한
연기와 냄새가 발생했지만 연무소
독은 연기 등이 생기지 않는다.
소독한 뒤에도 운전자나 보행자
의 시야가 확보돼 안전사고가 일어
날 확률이 적은 데다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름값이 들지 않아
예산도 절약된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 지난해 연무소독을
도입했으며, 구리시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전역에 연무소독을 실
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연수구와 남
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는 연
막소독과 연무소독을 병행해 사용
하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연막·연무소독을 병행하는 계양
구·중구·부평구·서구보건소는 주
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연막소독에 익숙해진 주
민들이 연무소독을 본 뒤 “왜 연기
가 나지 않느냐”, “소독이 제대로
되는 것 맞느냐”는 등의 민원을 제

기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와 일반 녹지 등
을 구분해 연막과 연무소독을 나눠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사소한 오해
로 인해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은 소독약을 어떤 물질과
혼합해 사용하느냐의 차이이기 때
문에 소독 효과 면에서는 거의 차이
가 없다”며 “오히려 연무소독이
주·야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사용 가능한 데다 휘발성이 없고 잔
류효과가 높아 경제성과 안전성 면
에서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추가로 다시 소독을 하면 시간이나
예산 면에서 낭비”라며 “연무소독
을 도입하기 전 주민들에게 이에 대
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 LNG 기지 증설공사 3차 주민 설명회가 9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가운데 증설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민 설명회 진행을 막고 있다. 이날 주민 설명회는 지난 2차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LNG 탱크 증설 3차 설명회도 불발

주민들 “이유 듣고 싶지 않다”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액화천연
가스(LNG) 탱크 증설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
업 타당성을 알리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추
진 배경, 안정성 등 공사의 입장을
들으 이유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
다는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설명회 무산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9일 인천시 연수
구 송도컨벤시아에서 3차 주민 설
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설명회는
LNG 기지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로 시작도 못 하고 끝났다.
인천 LNG 기지 이전촉구 주민대
표 위원회 회원 20여 명은 설명회
개최 시간에 맞춰 행사장에 진입,
설명회 자체를 막았다.
공사 역시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당초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

부 결정을 내렸지만 자칫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어 원
칙대로 설명회를 이어갔다.
3번에 걸친 모든 설명회가 무산
되자 공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탱크 증설에 대
한 필요성을 주민께 알리는 것은 포
기하더라도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
를 들어야 하는데 아예 기회조차 박
탈되다 보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어떻게 주민을
만나야 할지 다시 결론을 내리겠
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jih@kihoilbo.co.kr



새로운 도약과 도전의 27년!

최고가 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래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경인지역의 아침을 여는 신문 기호일보의 창간 27주년을 축하드리며

우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값진 땀방울을 흘릴 것입니다.

(주)대림이앤씨

이정빈 선제골… 마침, 슈틸리케 감독이 봤군요

U대회 남자축구 3골 넣고 4강행

볼 점유율 6대 4… 우세한 경기력 3골 폭발하며 내일 브라질전 기대

한국 유니버시아드 남자 축구 대표팀이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루과이를 꺾고 4강에 올랐다. 한국은 9일 전북 정읍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8강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이정빈(20·인천대)과 정원진(21·영남대)의 골을 앞세워 3-0으로 승리했다. 조별 리그에서 A조 1위(3승)로 8강에 오른 한국은 D조 2위 우루과이를 맞아 6대 4의 볼 점유율을 보이며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한국은 전반 19분 정원진의 크로스가 골문으로 쇄도하던 이정빈의 머리를 살짝 빗나가며 아쉽게 득점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5분 뒤에는 우루과이 마틴 몬토이에게 골대 옆을 지나가는 슛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선제골은 전반 29분에 터졌다. 한국은 우루과이 진영을 파고들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수비수가 걷어내지 못하고 흐른 공을 이정빈(20·인천대)이 오른발로 골망을 갈랐다. 지난 7일 캐나다와의 A조 조별 리그 3차전에서 두 골을 넣은 이정빈은 이날 대학선수들의 경기

력 점점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슈틸리케가 보는 앞에서 득점을 올리며 눈도장을 받았다. 조별 리그에서 두 골을 넣은 정원진도 후반 25분 이정빈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는 중앙선 부근에서 패스를 받아 골문으로 치고 들어간 뒤 골로 연결시키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2-1로 꺾은 브라질과 오는 11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탈리아와 일본은 아일랜드와 프랑스를 각각 1-0으로 꺾고 4강에서 맞붙게 됐다. ◇9일 전적 ▶준결승 한국 3(1-0 2-0) 우루과이 ▶득점=이정빈(전반 29분), 정원진(후반 25분·45분·이상 한국) /연합뉴스



슈틸리케 국가대표 감독 참관
울리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9일 오후 정읍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축구 한국과 우루과이의 준준결승전을 보고 있다. 오른쪽은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는 이정빈. /연합뉴스

SK로 ‘이기는 투수’ 세든 유턴

밴와트 빈자리에 ‘2년 전 선발’ 재영입 KBO리그 다승왕으로 15만 달러 계약 최고 구속 140km대 찍고 제구력 안정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최근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팀을 떠난 외국인 투수 트래비스 밴와트를 대체할 선수로 2년 전 SK 선발로 맹활약한 좌완 크리스 세튼(32·사진)을 선택했다. 9일 SK 야구단에 따르면 지난 1일 kt 위즈와의 휴경기 때 부상(오른손목 위쪽 팔뚝 골절)을 당한 밴와트를 대신할 외국인 투수를 찾기 위해 미국·일본·대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입 선수들을 물색해오다 최종적으로



KBO 리그 다승왕 출신인 세튼을 총액 15만 달러에 영입했다. 세튼은 지난 2013년 SK 소속으로 30경기에 출전해 14승 6패, 평균자책점 2.98을 찍고 다승 공동 1위, 탈삼진 2위(160개), 평균자책점 3위 등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특히 187.1 이닝을 던지며 이닝이터(선발투수로 나와서 많은 이닝을 막아주는 선수)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고, 팀 용화력과 인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영입되면서 SK와 재계약이 무산된 세튼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하며, 올해 대만 프로야구 라미고 몽키스에 입단했다. 세튼은 장신(193cm)의 좌완 선발

로 최고구속 140km 중반대의 직구와 슬라이더·커브·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던지고 제구력이 안정된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 마이너리그(탬파베이 레이스 산하)에서 데뷔한 세튼의 마이너리그 통산 성적은 286경기 104승 93패 평균자책점 4.55를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통산성적은 38경기 2승 3패 평균자책점 5.47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며 10경기 4승 5패 평균자책점 4.67을, 올 시즌에는 대만 라미고 몽키스에서 9경기 4승 1패 평균자책점 3.02를 기록했다. “다시 한 번 한국에서 뛸 기회를 준 SK 야구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문을 연 세튼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대만의 다양한 야구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내 번째 우승에 기여하고 싶다”며 “하루빨리 팬들과 옛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최윤탁 기자 cyt@khihoilbo.co.kr

인천Utd ‘무명유실’이 힘이다

〈無名有實〉

주전 떠나보내고 이름 없는 선수 영입 출전 찬스 잡으면 악으로 강으로 경기 수비력 강화도 12일 성남전 승리 열쇠

최근 6경기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번에는 성남FC를 제물로 삼는다. 인천은 오는 12일 오후 6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성남과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시즌 22라운드를 펼친다. 인천은 이날 홈 4연승과 함께 7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다. 시민구단인 두 팀은 개막 전 하위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두 경을 열어보니 인천은 현재 승점 30점(골 득실 +5)으로 포항(30점, 골 득실 +3, 6위)을 포함해 제주(29점, 8위), 울산(23점, 10위) 등 기업구단들을 제치고 5위에 올라왔다. 성남(30점)도 5경기에서 3승 2무의 성적을 내며 포항 다음인 7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인천은 올 시즌 전 시민구단으로서 재정

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독을 비롯해 남준재·문상운·이석현·구본상·안재준·박태민 등 주전 선수들을 떠나보내고 무명의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즌 전망은 강등 후보였다. 그러나 인천은 시즌을 거듭하면서 놀라운 반전을 이어오고 있고, 이 같은 결과는 선수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과거 벤치를 오래 지켰던 탓에 출장 의지가 강했던 선수들은 구단 경영난으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경기에 나가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김도훈 인천감독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 김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도 돋보이고 있다. 스트라이커 출신인 김 감독은 부임 후 예상외로 수비 조직력에 중점을 뒀고, 그 결과 21경기에서 17골밖에 내주지 않는 찌뚱 축구를 펼치며 K리그 클래식 12개 팀 중 유일하게 0점대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경쟁을 강조하는 김 감독이 주전 ‘베스트 11’을 정하지 않고 고르게 출장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늑대 축구’ 인천의 상승세는 오는 12일 오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탁 기자 cyt@khihoilbo.co.kr

수원FC, 인천 김재웅 영입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승격에 도전하는 수원FC는 9일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김재웅(27·사진)을 영입했다. 173cm의 키와 몸무게 68kg의 김재웅은 용인 백암고-경희대 출신으로 지난 2011년 공개 테스트를 통해 인천 유나이티드의 연습생으로 프로에 입단한 뒤 15경기에 출전해 3골 1도움을 뽑아내며 ‘연습생 신화’를 썼다. 또 지난해에는 FC 안양에 임대돼 27경기에서 7골로 몰론 득점 감각을 뽐냈으며 특히 지난해 6월 고양 HiFC와의 13라운드 경기에서는 K리그 챌린지 최장거리 골(62m)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덕제 감독은 “김재웅은 중앙과 측면이 모두 가능한 미드필더 자원으로 볼 터치와 기술이 매우 뛰어나며 전방으로의 날카로운 킬러패스가 장점”이라고 소개한 뒤 “미드필더 이외에도 새도 스트라이커로 활용이 가능해 후반기 전술 운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FC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 홈 경기를 치른다. 심연기 기자 sims@khihoilbo.co.kr

新 기록 스틸러

김국영 육상 남자 100m 10초16 한국신기록으로 결승 올라 6위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 김국영(24·광주광역시청)이 유니버시아드 무대에서 한국 남자 100m 신기록을 달성했다. 김국영은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10초16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0년 10월 7일 전국육상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자신이 기록한 10초23을 5년 만에 0.07초 앞당긴 한국 신기록이다. 기록을 확인한 김국영은 두 팔을 들어 환호했다. 조속 1.8m의 뒷바람이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김국영은 육상 단거리의 불모지 ‘한국 육상’에서 무척 귀한 존재다. 19살이던 2010년, 김국영이 한국 남자 100m 신기록(10초23)을 달성하자 모든 관심이 그를 향했다. 때론 자신에게 쏠리는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국영은 지난해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100m 준결승에서 자신의 최고기록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0초35를 기록,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김국영은 “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자책했다. 그러나 김국영은 다시 일어섰다. 올해를 시작하며 “순위보다 한국 100m 기록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남은 대회들을 치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고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 한편, 김국영은 이날 오후 6시 45분에 열린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31을 기록하며 아쉽게 6위에 그쳤다. /연합뉴스